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 현황 연구 (2)  
- 최고지도자의 언행과 그 효과 및  
의미에 대하여-

2020. 2. 28.

서울대학교 문화유산연구소

연구책임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이선복
연구보조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과정 김현우

- 목차 -

I. 연구목적 및 기대효과 .....	1
1. 2018년도 1차 연구 요약 .....	3
2. 2019년도 2차 연구 목적 .....	6
II. 연구방법 .....	7
1. 조사대상 .....	7
2. 조사방법 .....	9
3. 분석방법 .....	9
4. 전문가 자문 .....	10
III. 자료조사 및 분석 .....	10
1. 자료조사 .....	10
2. 분석 .....	11
IV. 연구결과 .....	22
참고문헌 .....	24
<부록> 로동신문 수록 문화유산, 혁명유산, 자연유산 관련 기사 목록 ...	26

## I. 연구목적 및 기대효과

북한의 문화유산은 한반도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살피고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이지만 70년이 넘는 분단기간을 거치며 남한사회의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은 한반도 남부에 국한되었다. 문제는 과거 한반도 남부지역의 문화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북한 문화유산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선사 및 고대사 연구일수록 북한지역의 자료는 당시 사회의 변화상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로 여겨지고 있다(이기성 2015, 임상택 2015, 한창균 2013).

북한 문화유산은 학술적 측면에서만 유의미한 것이 아니다. 학술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남북교류의 중요한 연결고리라는 점에서 부각되는 측면이 있다. 남한에 한정되었던 민족문화의 자산을 풍요롭게 하는 방법이자(전영선·신준영 2016) 인류 공동의 자산(박대남 2008)이라는 점에서 남북 문화유산 교류의 당위성이 성립한다. 나아가 분단이 오랜 기간 지속됨에 따라 남북의 문화가 이질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문화유산 교류는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 문화통합의 토대가 될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오양열 2003; 임상선 2007; 정은찬·문철훈 2017; 정호섭 2012; 최광식 2017; 하문식 2007). 게다가 남북의 이념이 대립하는 와중에 문화유산은 정치 및 이데올로기 문제에서 벗어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정은찬·문철훈 2017; 최광식 2017; 하문식 2007). 따라서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추진될 수 있으며(신현욱·박영정 2014; 정호섭 2012), 남북교류의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 내기도 용이한 측면이 있다(최광식 2017).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매우 미진한 상황이다. 북한의 학술지는 여전히 접근의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수고를 거치면 대부분 입수가 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의 문화유산 관련 정보와 연구현황에 대해서는 남한 연구자도 어느 정도 접근 가능한 편임에도 본격적인 연구로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에서 출판된 논문의 내용이 소략하기도 하거니와 대부분 2차 가공된 정보임에 따라 원자료의 맥락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북한 문화유산이 어떻게 조사되고 보존, 관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북한 문화유산의 이

해와 활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지역까지 시야에 포함시키는 한반도의 역사문화 연구를 위해서는 북한 문화유산 관리 현황을 파악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북한 문화유산 관리 현황에 대한 이해는 현재 우리가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지렛대로 여기고 있는 문화유산 분야에 대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전술하였듯이 탈정치적, 탈이념적이라는 인식하에서 문화유산 부문의 남북 교류는 큰 이견 없이 상호협력이 가능한 분야라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문화유산의 의미에 대한 정치 및 이념적 평가와 그에 따른 학술적 해석에서 남북 간 상당한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북한의 단군릉에 대한 해석과 급기야 대동강문명론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남한 연구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사례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추론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것이 아니라, 북한사회 특유의 정치적, 이념적 해석의 결과물임을 지적해왔다(이선복 1997). 따라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 없이 북한 문화유산에 대한 표면적 그리고 낙관적 접근은 유의미한 남북 교류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수한 정치적, 이념적 상황하에 놓인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효과적인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자 이루어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유의미한 효과를 기대한다.

첫째, 남한에서 북한 문화유산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한반도 역사 문화연구가 활발해지게 될 것이다. 지리와 정보의 제약을 넘어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시아라는 큰 지리적 틀에서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다. 지금까지 문화유산 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남북협력사업에서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화유산 관리에 대한 조사와 이해는 소홀히 했던 측면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의 정치, 경제, 군사부문 중심의 시각을 확장하여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북한 이해의 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 성과는 문화유산 분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전술하였듯 남북의 문화유산에 대한 시각은 정치와 이념뿐만

아니라 학술적 측면까지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그에 따라 남북 사이의 심각한 갈등요소가 잠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유산과 관련한 남북 사이의 교류는 다원적이며 중층적 문제해결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본 연구는 그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차 통일 이후 북한지역 문화유산 관리와 관련하여 직면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보다 능동적이며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1. 2018년도 1차 연구 요약 (김현우·이선복 2019)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본 연구팀은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의 법적 체계를 검토하고 그것의 실제 적용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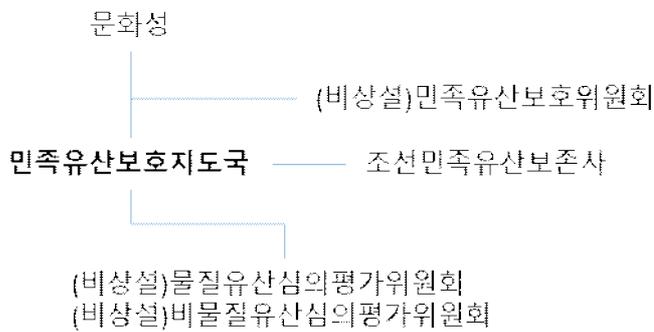
북한 문화유산 관리제도에 대해서는 국내외 관련 기관에 방문하여 북한의 문화유산 관계 문헌을 조사하는 한편, 관련 연구자들로부터 북한 문화유산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제도는 주로 교시와 명령을 통해 집행되다가 1994년 <문화유물보호법>이 제정되며 비로소 법적으로 체계화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인 제개정을 거치며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법령의 조항이 추가 및 보완되었다. 이후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이, 2015년에는 현행 법령인 <민족유산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외형상 문화유산 관리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문화유물’->‘문화유산’->‘민족유산’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관리 대상이 점차 확대되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변화상이다(표1).

<표 1>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법령별 관리·보호 대상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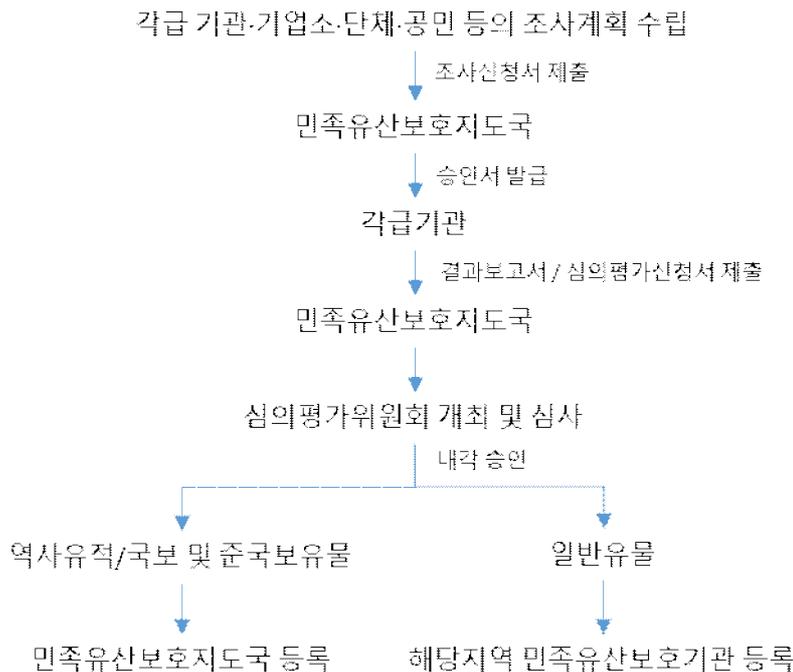
문화유물보호법(1994)					문화유산보호법(2012)					민족유산보호법(2015)					
구분		평가			구분		평가			구분		평가			
문화유물	역사유적	국보	준국보	일반	물질문화유산	역사유적	국보		일반		물질유산	역사유적	국보	보존	
	역사유물					국보	준국보	일반	역사유물	국보					준국보
					비물질문화유산		국가		지방		비물질유산		국가		지방
										자연유산		(별도의 법령으로 규제함)			

현행 <민족유산보호법>에 대한 검토를 통해 파악 가능한 북한의 문화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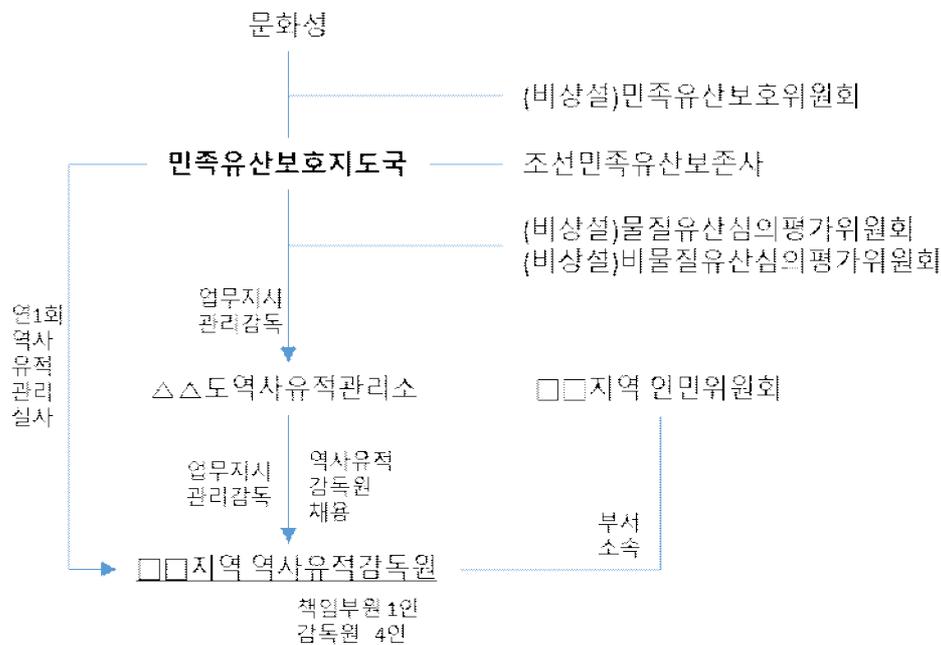
관리체계는 관리조직(그림 1)과 그 업무, 발굴조사 허가 및 문화유산 등록 절차(그림 2) 등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문화유산의 관리 기조와 체계를 어느 정도 이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북한 법령의 내용이 소략한데다, 법령에 부속된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음에 따라 구체적인 관리제도를 파악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나아가 북한의 관리제도의 형식적 측면이 면밀히 조사된다고 하더라도 문화유산 관리 현장에서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에 따라 문화유산 관리 현황은 예상과는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그림 1> <민족유산보호법>으로 확인되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편제



<그림 2> 물질유산의 발굴조사 및 등록절차



<그림 3> 북한 역사유적감독원의 편제

따라서 본 연구팀은 북한의 현행 <민족유산보호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또는 얼마나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과 법령에서 규정되지 않은 여러 부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관리 및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유산 관리 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탈북 인사를 섭외하여 인터뷰를 시도하였다. 김정은 집권 이후, 특히 <민족유산보호법>이 제정된 이후의 문화유산 관리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비교적 최근에 탈북한 인사로 한정하여 섭외를 시도하였으며, 다방면으로 수소문한 끝에 1명을 섭외하여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다.

지방에서 역사유적감독원으로 근무하였던 그의 증언을 통해 단순히 법령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 지방의 역사유적 관리와 관련한 조직의 편제(그림 3), 관리인원의 채용과 교육, 세부 업무, 시설, 장비, 예산, 법령상 모호한 조항의 운영 실제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연구는 북한 문화유산 관리 실태를 전하는 문서나 증언이 드물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보를 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의 내용은 지방의 말단 관리자의 증언에 기반한 사례에 불과하다는 점에 이를 북한 문화유산 관리의 실제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본 연구팀은 이러한 1차 연구결과를 통해 관련 문헌 자료의 수집과 증언 확보를 꾸준히 시도하는 한편, 기존에 살펴보지 않았던 새로운 자

료와 방법론을 통해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2. 2019년도 2차 연구목적

2차년도 연구는 1차년도 연구를 보완하여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의 실제에 좀 더 접근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1차 연구는 북한에서 공개된 법령을 분석하고 그 적용양상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는데, 현재까지 확보 가능한 북한 법령에 대한 자료는 세부적인 시행규칙이 확인되지 않은데다 특히 실태조사를 위해 문화유산 관리 직종에 종사했던 탈북인사를 섭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에 따라 본 연구팀은 이러한 문헌자료와 인터뷰 확보는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두고, 현실적인 자료 선택과 연구 방법론 수립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한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공력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남한에서 입수 가능한 자료 중에서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와 관련된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오히려 북한의 공식 기록에 주목하였다. 북한의 공식기록은 체제와 이데올로기 선전을 위해 조작과 윤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러한 레이어를 걷어낼 수 있다면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와 관련된 의미있는 정보 혹은 관리 정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공식문서인만큼 조직과 편제, 업무 내용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이면서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며, 그간 알기 어려웠던 관리 정황도 어느 정도 유추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는 1차 연구 당시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법령을 검토하면서 북한 문화유산 관리체계의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법령은 1994년에 제정된 <문화유물보호법>을 통해 비로소 체계화되었음은 앞서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화유산 관리법령의 공백기라고 할 수 있는 1950~1990년대 전반까지 문화유산에 대한 최고지도자의 교시와 현지지도가 집중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또한, 1994년부터 최근까지 문화유산 관리법령이 연속적으로 제·개정되었음에도 문화유물, 문화유산, 민족유산과 같이 관리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었을 뿐, 내용적으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도 특징적이다. 이는 관련 법의 시행령 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언하기 어려우나 북한체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초법적 효력을 지니는 최고지도자의 교시에 기인했을 것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에 대한 이해는 이와 관련한 북한 최고지도자의 발언과 행적을 고려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 문화유산 관리와 관련한 기존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인용되는 북한 지도자의 교시는 몇 가지로 제한됨에 따라 기존에 알려진 것만으로는 북한 문화유산 관리와 최고지도자와의 관계를 살피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인용된 북한 최고지도자의 발언들은 대체로 실제 문화유산 관리와 관계된 실무나 지침에 해당한다기보다는 문화유산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측면이 강조됨에 따라 관리 목적의 당위성과 그 정치적 활용에 치우친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복 인용되는 중요한 교시에 대한 해석을 염두에 두면서도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는 북한 최고지도자의 언행과 그 후속조치를 살펴보는 것은 북한 문화유산 관리의 실제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지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는 북한의 공식 기록에서 확인되는 문화유산 관계 기사 및 북한 최고지도자의 문화유산 관련 발언과 행적을 면밀히 조사하여 목록화함으로써 북한 문화유산 관리와 관련된 제도적 맥락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토대로 북한 문화유산 관리실태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고지도자와 관련된 문화유산 관리와 활용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연구방법

### 1. 조사 대상

본 연구는 북한 공식기록에서 확인되는 문화유산 관련 기록을 수집하여 북한 최고지도자의 관련 언행과 함께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북한의 공식기록은 다음과 같다.

### 1) 북한 최고지도자 저작류

역대 북한 최고지도자의 저술, 교시, 현지도 등을 집성한 것으로 기존 연구에서 주로 검토하였던 자료이다. 이미 많은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고, 본 연구는 이미 잘 알려진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목적과 기초보다는 관리의 실재를 검토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본격적인 분석자료로 활용할 필요성은 낮다. 다만 문화유산과 관련하여 최고지도자의 인식 등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보조적으로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표 2> 김일성 및 김정일 저작집 목록

연번	서명	출판연도	저자	비고
1	김일성선집 제1판	1953-1954	김일성	4권
2	김일성선집 제2판	1960-1964	김일성	6권
3	김일성저작선집	1967-1994	김일성	10권
4	김일성저작집	1979-1998	김일성	50권
5	김일성전집	1992-2012	김일성	100권
6	김정일선집	1992-2015	김정일	25권
7	김정일전집	2012-현재	김정일	현재 23권

### 2) 조선중앙연감

조선중앙연감은 북한의 공식적인 국가 기록물로서 1949년부터 현재까지 연 1회 발간되고 있다. 시기에 따라 구성에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국내편(정치분야, 경제·사회문화분야, 대남·해외분야), 국제편, 자료 및 문건편으로 구성된다. 관련 통계와 성과, 주요 이슈 등을 기록하고 있음에 따라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와 관련한 통계자료, 관리양상 등에 대해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 3) 로동신문

1945년 11월 1일 창간된 북한 노동당 기관지로서 여러 분야에서 북한 연구

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주7일 6개 면으로 발행하며 주로 1면에 최고지도자의 교시를 실는다. 6면에 불과하나 북한의 대표적인 언론으로서 북한의 각 분야의 소식을 실고 있으며, 그 가운데 문화유산 관계 기사를 통해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와 관련된 여러 정보를 간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문화유산과 관련한 최고지도자의 언행이 보도되는 만큼,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최고지도자의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과 활용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로 생각된다.

## 2. 조사 방법

국내외 여러 기관에 방문하여 위와 같이 선별된 자료를 조사하였다.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누락된 자료는 국내외 대학, 연구소 및 박물관 등에 방문하여 자료조사와 관련 연구자 면담을 실시하였다. 국외기관은 북한자료의 입수가 보다 용이한 일본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에 대한 방문을 추진하였다.

## 3. 분석방법

자료조사 과정에서 1차로 문화유산 관련 문헌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였다. 작성된 목록을 토대로 출처, 형식, 내용 등의 기준을 세워 분류하고, 연구 기간 내 작업 가능한 분량을 파악한 뒤, 본 연구목적에 부합한 자료를 선별하여 본격적인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우선 북한 문화유산 관련 공식기록의 추이를 검토하였다. 시기별 문화유산의 노출 빈도, 종류, 양상 등을 비교함으로써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의 변천 양상과 관리 정황을 살펴보는 것을 1차 목표로 분석하였다.

이후 북한 최고지도자의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과 활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치, 이념, 경제, 문화 등 최고지도자에 따른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과 개인적 기호,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북한의 공식기록에 노출된 언행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 4. 전문가 자문

상기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연구의 중간 평가와 자문을 구하고자 북한의 물질문화유산 조사 현황과 고고학 연구에 대해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한 바 있는 2인의 전문가를 섭외하여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 III. 자료조사 및 분석

#### 1. 자료조사

김일성·김정일 저작류, 조선중앙연감, 로동신문에 대한 자료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1차 검토 결과, 김일성·김정일 저작류는 기존 연구에서 파악한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조선중앙연감의 경우, 문화유산과 관련해서는 주로 국내편의 사회문화분야에 관련 통계와 주요 이슈가 소개되어 있는데, 내용이 소략하여 기존에 알려진 법령 이상의 문화유산 관리 정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수집된 자료 중 김일성·김정일 저작류 및 조선중앙연감은 분석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고, 로동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조사된 로동신문은 1949년부터 2018년까지 발행된 것으로, 문화유산 관계기사와의 비교를 위해 혁명유산 및 자연유산 관련 기사도 함께 수집되었다. 문화유산 관계기사는 일반적인 유적, 유물을 포함하여 역사박물관, 문화유산 관계 법령, 관리기관, 고고학, 발굴조사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혁명유산 관계기사는 혁명사적, 혁명박물관과 관련된 기사이며, 자연유산 관계기사는 명승지와 천연기념물 관련 기사이다. 분석을 위해 문화유산을 박물관, 보존복구, 법령/정책, 조사성과, 유물유적, 민속공원, 학계소식, 기타(해외동향 등) 등으로 분류하였다. 혁명유산과 자연유산 관계기사도 동일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비교가능토록 하였다.

전체 수집된 로동신문 기사는 총 860건으로 그 중 화질이 양호하여 내용 파악이 가능한 기사는 851건이다. 전체 로동신문 기사 목록은 보고서 말미에 수록하였다. 851건 중 문화유산 453건, 혁명유산 390건, 자연유산 8건이며,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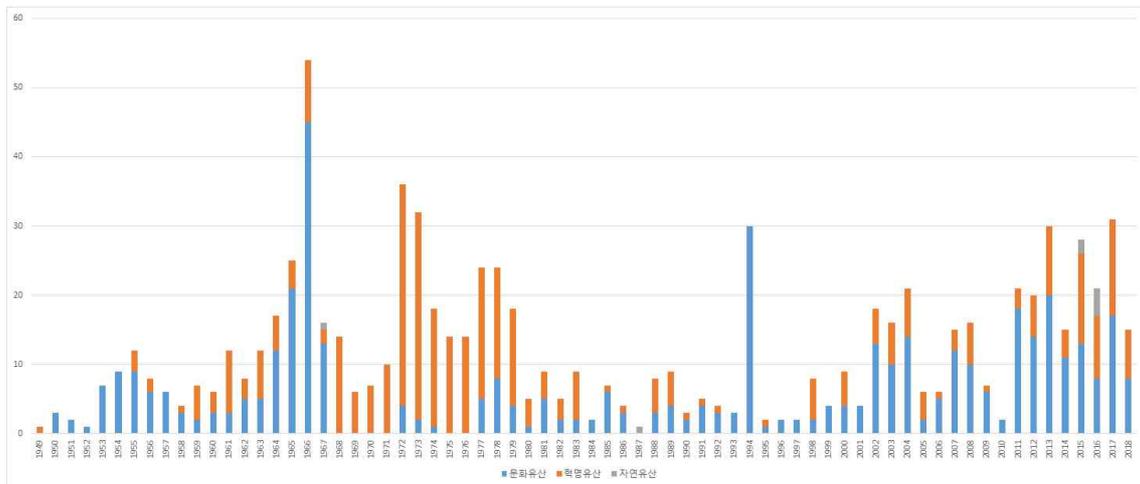
체 기사 현황은 <표 3>과 같다. 자연유산은 8건에 불과하기에 비교 가능한 표본크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후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표 3> 로동신문의 문화유산, 혁명유산, 자연유산 기사 현황

분류 종류	박물관	법령 정책	보존 복구	조사 성과	유물 유적	민속 공원	학계 소식	기타	계
문화유산	105 (23.2%)	8 (1.8%)	93 (20.5%)	95 (21.0%)	82 (18.1%)	12 (2.6%)	35 (7.7%)	23 (5.1%)	453 (100%)
혁명유산	361 (92.6%)	4 (1.0%)	5 (1.3%)	3 (0.8%)	16 (4.1%)			1 (0.3%)	390 (100%)
자연유산	7 (87.5%)				1 (12.5%)				8 (100%)
계									851

## 2. 분석

### 1) 전체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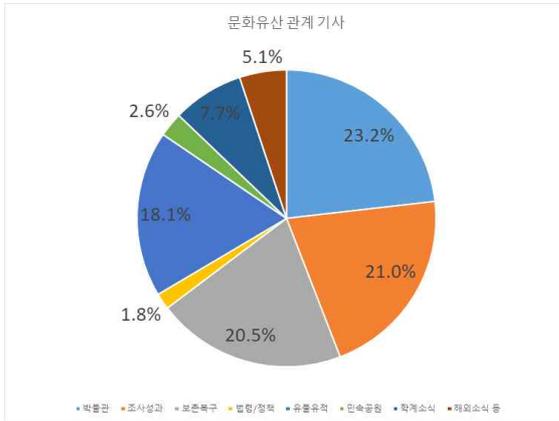
<그림 4> 로동신문의 문화유산, 혁명유산, 자연유산 관계기사의 연도별 추이

문화유산 453건, 혁명유산 390건, 자연유산 8건 합쳐서 총 851건의 기사를 수집하였다. 자연유산은 8건밖에 되지 않아 분석과 설명을 생략하며, 여기에서는 혁명유산을 포함한 전체 기사의 연도별 추이를 간단히 살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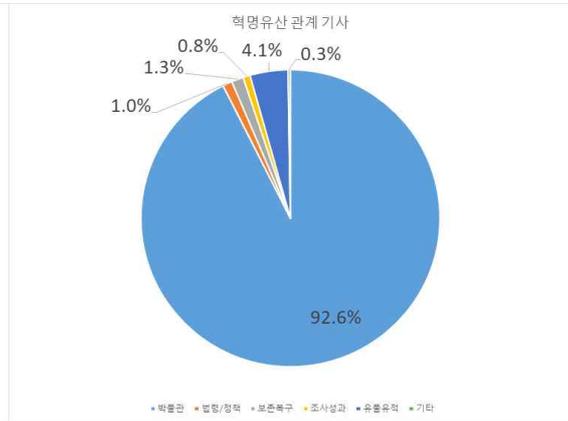
1964년부터 급증하였던 문화유산 관계기사는 1967년을 기점으로 급감하며 대신 혁명유산 기사가 문화유산 기사를 대체하는 것처럼 보인다. 혁명유산 기

사의 대부분이 혁명박물관에 내외빈이 참관한 단신 기사이며(92.6%; 그림 6), 1970년대의 혁명유산 관계기사 전부가 이에 해당한다.

1980년대 이후에는 문화유산 및 혁명유산 관련 보도 빈도가 모두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다 1994년만 급증하게 되는데 이후 시기에는 다시 1980년대의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아 그 해는 이상치로 간주할 수 있다. 2002년 이후에 보도량은 점차 회복되며 이전보다 혁명유산 관계기사의 비중은 줄어들고 문화유산 관계기사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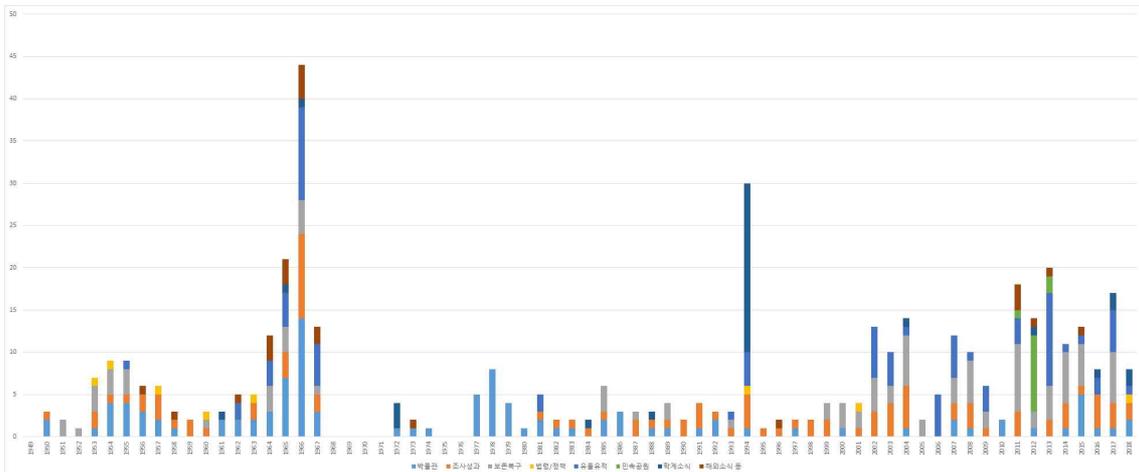


<그림 5> 문화유산 관계기사의 분포상



<그림 6> 혁명유산 관계기사의 분포상

## 2) 문화유산 관계기사의 추이



<그림 7> 문화유산 관계기사의 연도별 추이

문화유산 관계기사는 총 453건으로 산술적으로는 연평균 약 6.4건의 기사가

보도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연도별 편차가 큰 편이다. 문화유산 관계기사의 연도별 그래프를 통해 시기를 구분하여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증감은 있으나 1964년부터 급격하게 건수가 증가하는 1949~67년의 1기, 1967년 이후 문화유산 관계기사가 급감하고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시기인 1968~2001년의 2기, 그 후 점차 문화유산 관계기사가 회복되는 2002~2018년의 3기로,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였다.

#### (1) 1기: 1949~1967년

북한정권 수립 이후 1967년까지는 문화유산 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시작하며 한국전쟁을 거치며 파괴된 문화유산을 복구하고 문화유산 조사와 소개를 활발히 했던 시기이다. 그래프 상에서 1964년부터 로동신문 기사 건수가 급증하고 1966년 최대치에 이르렀다가 1967년 감소한 뒤 1968년에는 문화유산 관계기사 건수가 0이 된다. 이러한 양상으로 보아 1기는 1964년을 기준으로 1-1기와 기사 건수가 급증하는 1-2기로 구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전후에는 전국 각지에 역사박물관이 건립되었으며, 박물관을 중심으로 북한 각지에서 유물 수집 사업이 이루어졌다<sup>1)</sup>. 전시기를 통틀어 문화유산 관계 법령의 소개와 더불어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기사가 여러 차례 보도되기도 하였다(표 4). 흥미로운 점은 문화유산 보존관리 당국의 행태를 비판하는 기사도 확인된다는 것이다<sup>2)</sup>. 이 시기에는 문화유산 보존복구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었다.<sup>3)</sup>

1-1기와 1-2기를 구분하는 항목은 유물·유적 소개 기사와 남측 동향 기사이다. 유물·유적 소개 기사 중 1-2기에 해당하는 기사가 전체 26건 중 23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1-2기 문화유산 기사 건수의 증가를 견인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표 5). 또한 남측동향의 측면에서도 1-2기는 16건 중, 13건에 해당한다. 남측 동향에는 남한의 문화재 관리 상황을 비판하는 것<sup>4)</sup>뿐만 아니라 남한에서 새로 발견된 유적을 소개하는 경우도 있다(표 6). 이 시기에는 북한이 정

1) “박물관들의 복구 및 개관준비사업 활발”(1953.10.18)

2) “일부 당 및 국가기관의 지도 일꾼들은 이 사업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 문화 유물 보존에 대한 신중한 대책을 강구한 대신에 심지어는 그를 파괴 만용하는 것을 묵과하고 있다.”(민족 문화 유물 보존 사업에 당적 관심을 돌리자, 1953.06.10)

“적지 않은 위원회들은 이 사업을 경시하며 그에 관심이 적은 예로부터 유명무실한 존재로 되고 있다.”(유적 유물 및 천연기념물 보존 관리 사업을 강화하자, 1955.04.06)

3) “문화 유물 보존 관리 사업을 더욱 강화하자”(1957.01.12)

4) “파괴되고 도적당하는 남녘의 문화유물”(1966.11.14.)

통을 잇고 있다고 여기는 고조선, 고구려, 고려뿐만 아니라 낙랑에서 신라, 백제, 조선시대 유물·유적 소개와 발굴조사 기사가 수록되어 있으며, 심지어는 남한에 위치하거나 남한에서 조사한 유물·유적을 보도하기까지 한 만큼, 전체 북한 보도 내용을 통틀어 가장 정치색이 열린 시기라고 할 수 있다(표 5)

<표 4> 1949~67년 정책 소개 기사와 사설

연번	일자	제목	비고
1	19530304	조선 물질 문화 유물 조사 보존 위원회를 개편	
2	19530528	민족 문화 유물 보존 관리 사업	
3	19530610	민족 문화 유물 보존 사업에 당적 관심을 돌리자	
4	19540809	각종 건설 공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유적 유물들 보존 관리할 데 대한 내각 지시 발표	
5	19550406	유적 유물 및 천연기념물 보존 관리 사업을 강화하자	
6	19550606	문화 유물 보존과 역사 박물관	
7	19570112	문화 유물 보존 관리 사업을 더욱 강화하자	
8	19600405	문화 유물 보존 관리 사업을 일층 강화하자	
9	19600519	공화국 내각에서 문화 유적 및 명승지 천연 기념물 보존 관리 사업을 개선 강화할 조치를 강구	
10	19630618	혁명 사적지와 문화 유물, 명승지, 천연 기념물들을 더 잘 관리 보존할 대책을 강구	
11	19640905	문화 유물을 전 인민적으로 애호 보존하자	
12	19641017	문화 유물을 잘 보존할 대책을 강구 - 내무성에서	
13	19670119	민족문화유산계승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	

<표 5> 1949~1967년 조사성과 및 유물·유적 소개 기사

연번	일자	제목	비고
1	19530525	희귀한 한대의 유물 - 청동제 '록로등'을 발견	낙랑
2	19660312	자기에 가까운 신라 도호	신라
3	19660320	새로 발굴된 구석기 시대의 유물들	구석기(남한)
4	19660427	고려 시기 록청자기의 생산 유적을 발굴	고려(남한)
5	19660427	구석기 시대의 유물 발견	구석기(남한)
6	19670125	불국사	신라(남한)
7	19670210	서울에서 백제시기의 문화유물을 발굴	백제(남한)
8	19670215	신라의 금동공예품	신라

<표 6> 1기 세부 시기별 문화유산 관계법령 건수

시기	박물관	조사	보존	법	유물	학계	남측 동향 등	계
1-1	23	16	13	5	3	1	3	64
1-2	27	15	11	0	23	2	12	90

(2) 2기: 1968~2001년

1968년에서 2001년까지는 대부분 문화유산 관련 보도량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다만 혁명유산 보도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1980년까지와 문화유산 기사가 급증하는 1994년을 기준으로 보도 내용과 양상에 차이가 있어 이를 기준으

로 시기를 세분할 수 있다. 따라서 1968~80년까지를 2-1기, 1981~93년을 2-2기, 이상치인 1994년을 제외하고 1995~2001년까지를 2-3기로 설정하고자 한다.

우선 2-1기는 혁명유산 보도가 문화유산 보도를 완전히 대체하는 양상임을 앞서 확인한 바 있다(그림 4). 평균 약 1.9건의 이 시기의 문화유산 관련 보도는 혁명박물관의 내외빈 참관 기사와 같이 주로 조선중앙력사박물관에 주요 내외빈이 방문했다는 보도가 대부분이며<sup>5)</sup> 그 외에는 일본 고분벽화 공동조사 혹은 남측 문화유산 관리 동향, 그리고 김일성의 조선중앙력사박물관에 방문하여 현지도도를 한 기사까지 총 5건에 불과하다(표 8).

문화유산 관계기사의 갑작스런 보도 중단과 혁명유산 기사의 대체 양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다. 1967년까지 궤도에 오르던 문화유산 조사, 연구, 관리와 이에 대한 취재가 모종의 이유로 제한 또는 중단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로동신문의 문화유산 관계기사만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 기간 동안에 북한 고고학 연구의 단절 현상이 거론된 바 있다(이선복 1992: 45-58). 1967년 『고고민속』이 폐간되고 1986년 『조선고고연구』로 복간되기까지 북한 고고학계는 매우 제한된 활동만이 확인된다. 이는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에 걸쳐 나타나는 김정일 후계체제의 등장과 주체사상이라는 유일사상에 입각한 사회 모든 부문의 재조직화라는 북한의 정치사회적 급변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즉 주체사상이 강제되며 문화유산의 재해석이 요구되었고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조사, 연구와 보도가 중단된 것이 아닌가 한다. 대신 그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운 데다 보다 효과적인 선전물로서 혁명유산을 중심으로 보도를 대체했을 가능성이 있다.

1981~1993년까지 2-2기의 문화유산 관련 보도량은 연평균 3건의 낮은 수준으로 유지된다(그림 7). 김일성의 현지도 이후에도 박물관에 대한 기사는 내외빈의 참관을 단신으로 소개하는 기사에 불과한 편이다. 다만 내외빈의 박물관 참관기사는 줄어든 대신 유적조사<sup>6)</sup>, 학계소식<sup>7)</sup>, 각지의 보존복구사업<sup>8)</sup> 등 다양한 소식이 보도되기 시작한다. 특히 1993년에는 동명왕릉 개건<sup>9)</sup>과 단군릉

5) “하셰미트요르단왕국 국회대표단이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을 참관”(1979.05.29.)

6) “새로 발굴된 남경유적”(1981.08.09)

7) “<남경유적에 관한 연구>와 <세나라 시기의 리두에 대한 연구>를 출판”(1984.03.18)

8) “문화유적관리를 잘한다 - 평양시명승지 및 문화유적관리소에서”(1989.02.26)

9) “로동당시대와 더불어 빛나게 된 력사유적 - 동명왕릉 개건에 깃든 이야기”(1993.05.15)

발굴 성과<sup>10)</sup>를 김일성의 현지도 일화와 함께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1994년 왕건왕릉 및 단군릉 개건과 관련된 기사로 이어진다.

1994년은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와 활용에서 큰 이정표가 되는 시점으로 여겨진다. 이 해에 왕건왕릉과 단군릉이 개건되고, <문화유물보호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표 9). 1994년 보도량이 급증한 것은 전체 30건의 기사 중 20건이 단군릉의 개건 기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모든 논문을 요약하여 기사화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하지만 20건을 제외하고라도 1년에 10건의 기사량은 전후 시기를 비교해도 약 3배 정도 많은 수준이다.

단군릉, 동명왕릉, 왕건왕릉의 대대적인 개건사업과 <문화유물보호법> 제정으로 인해 1994년 이후 문화유산 관련 보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1995~2001년의 2-3기 문화유산 관계기사의 보도량은 연평균 약 2.7건으로, 1980년대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그 이유는 아마도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고난의 행군”<sup>11)</sup>으로 인해 문화유산 관리, 조사, 연구의 여력이 없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유산 관계기사의 보도량은 경제상황이 호전되는 2000년대에 들어서야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시기의 보도는 1980년대와 유사한 편이다. 유적조사<sup>12)</sup>가 약 24%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개성<sup>13)</sup>, 평양<sup>14)</sup>, 함경북도<sup>15)</sup> 문화유산 관리 사례를 소개하거나 대중에게 문화유산 관리를 촉구하는<sup>16)</sup> 기사 정도를 거론할 수 있다.

<표 7> 2기 세부 시기별 문화유산 관계법령 건수

시기	박물관	조사	보존	법	유물	학계	남측 동향 등	계
2-1	31	0	0	0	0	3	1	35
2-2	13	16	7	0	3	2	0	41
1994	1	4	0	1	4	20	0	30
2-3	2	8	7	1	0	0	1	19

<표 8> 2-1기 문화유산 관련 주요 기사

연번	일자	제목	비고
----	----	----	----

- 10) “단군릉 발굴 보고 -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민족의 단일성에 대한 확증”(1993.10.02)  
 11) 북한의 공식 기록에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용어는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이우영 2016), 대체로 1990년대 후반기의 경제난을 의미한다.  
 12) “표대유적”(1998.09.13.)  
 13) “력사유적유물보존관리사업을 잘한다 - 개성시에서”(2000.05.09)  
 14) “력사유적유물보존관리에 큰 힘을 - 보존관리를 군중적으로 - 평양시에서”,(2001.10.31)  
 15) “력사문화유적관리를 잘한다 - 함경북도명승지 및 문화유적관리소에서”(1999.05.09.)  
 16) “력사문화유적을 잘 보존관리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된 방침”(1999.05.22)

1	19721003	일본 다카마쓰쓰카고분종합학술조사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일본을 방문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자 대표단이 도쿄에 도착하였다. - 수많은 총련일군들과 각계층 재일동포들, 일본의 각계 대표들이 비행장에 나와 대표단을 열렬히 환영, 일본의 민주단체의 주최로 성대한 환영모임 진행	
2	19721003	일본 다카마쓰쓰카고분종합학술조사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일본을 방문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자대표단 김석형 단장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3	19721110	고구려벽화무덤자료전시회가 일본 나고야시에서 열렸다	
4	19730719	남조선에서 귀중한 문화재가 계속 약탈당하고 있다	
5	1978021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을 돌아보시었다	현지지도

<표 9> 1994년 문화유산 관련 주요 기사

연번	일자	제목	비고
1	19940123	민족사를 빛내이는 역사유적	고구려(동명왕릉)
2	19940201	첫 통일국가의 역사를 전하는 귀중한 민족문화유적 - 고려태조 왕건왕릉 개건식 진행	고려
3	1994040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	
4	19940624	고구려시기 특이한 기마모형 발굴 - 강원도 철령에서	고구려
5	19940805	평양일대에서 단군조선의 유적유물 새로 발굴	고조선
6	19941004	우리 나라 역사유적유물사진전시회 -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에 서 진행	
7	19941006	단군릉개건준공식에 참가하기 위하여 온 <민단>계 동포들이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8	19941006	단군릉개건준공식에 참가하기 위하여 온 해외동포들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9	19941127	단군조선시기의 대규모부락터 발굴 - 덕천시 남양동에서	고조선
10	19941225	새로 발굴된 유물들	청동기/고려

### (3) 3기: 2002~2018년

2002년 이후 현재까지 로동신문의 문화유산 관계기사는 증가한다. 박물관 관련 기사는 급감하고, 주로 발굴조사, 유적·유물, 보존관리 상황을 소개하는 기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시기도 2011년을 기준으로 세분할 수 있는데, 로동신문에 민속공원 기사가 보도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이 시점은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 지도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한 시점이며, 로동신문에 명확히 소개되지는 않으나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이 제정되며 문화유산 관리 체계가 한차례 변화할 무렵이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유적·유물 및 발굴조사 소개 보도가 증가하였고, 종류도 다양해졌다.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기사도 많아졌으나 여전히 개성시 사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전 시기보다 최고지도자의 문화유산 현지지도 보도가 증가하였다. 김정일은 2002년 량천사<sup>17)</sup>, 2003년 심원사<sup>18)</sup>, 2007년 정광사<sup>19)</sup>를 현지지도 하였다. 김

17)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오랜 역사문화유적인 량천사를 돌아 보시었다”(2002.06.05)

정은의 유적 또는 박물관 현지지도는 보도되지 않았고, 대신 2012년 평양민속공원 건설현장에 방문하여 현지지도를 한 차례 한 바 있다. 이 외에도 2011년 최룡해 총정치국장의 민속공원 현지지도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sup>20</sup>.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평양민속공원에 대한 기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새로 집권한 김정은 위원장이 대표 업적으로서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6년 이후에는 관련 기사가 확인되지 않으며, 국내 언론보도를 통해 정치적 문제로 철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21</sup>).

<표 10> 2기 세부 시기별 문화유산 관계법령 건수

시기	박물관	조사	보존	법	유물	학계	남측 동향 등	민속	계
3-1	6	18	24	0	25	1	0	0	74
3-2	11	18	31	1	24	6	6	12	109

### 3) 로동신문을 통해 확인되는 문화유산 관리조직과 편제의 변천

로동신문 기사에 의하면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조직은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로부터 출발한다(1951.08.21). 이 기관은 내부에 미술부, 민속학부, 고고학부, 건축사부를 두고 있었는데, 1953년 ‘조선물질문화유물보존위원회’로 개칭하고 물질문화유물과 역사자료, 고고학, 민속학 유물과 미술, 공예품 등을 조사 수집하고 보존관리하는 기관으로 규정되었다(1953. 06.10). 이외에 박물관 사업을 지도·감독하고, 중요한 유물·유적의 모사, 모형제작, 사진촬영, 실측 등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출판한다. 이 위원회는 유물·유적의 ‘보존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 ‘보존관리위원회’는 지역에 설치되는 유적별 관리조직으로 추정된다. 내각결정 92호를 통해 1954년 건설현장에서 유적이 발견되는 즉시 시군 인민위원회에 보고하고 이후 ‘조선물질문화유물보존위원회’를 통해 처리 대책을 강구하게 함으로써(1954.08.09.) 권한과 역할이 추가되었다. ‘물질문화유물보존위원회’는 중앙뿐만 아니라 각 시도 단위에도 설치되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개성시 물질문화유물보존위원회’의 민속자료 수집, 실측제도, 선죽교와 남대문 보수 활동이 소개된 바 있기 때문이다(1954.05.23.).

18)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오랜 력사문화유적인 심원사를 돌아 보시였다”(2003.02.12)

19)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오랜 력사문화유적인 정광사를 돌아보시였다”(2007.08.13)

20) “최룡해총정치국장 마감단계에 들어선 평양민속공원건설장 현지료해”(2012.05.16)

21) “北, 김정은 지시로 평양 민속공원 해체...장성택 흔적 지우기”(2016. 6. 14. 연합뉴스)

그러나 “문화 유물 보존 관리 사업을 더욱 강화하자”(1957.01.12.)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물질문화유물보존위원회’가 설치하는 ‘유적보존관리위원회’는 형식적인 존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각 지역 단위에서는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 조직 편제가 자주 변경되는 듯하다. 1963년 ‘문화성’에서 문화유산 관리 대책을 강구한다는 기사가 보도된 것으로 보아 ‘조선물질문화유물보존위원회’는 ‘문화성’ 산하에 편제된 것으로 추정되나(1963.06.18), 이듬해에는 내무성에서 문화유물 보존을 위해 각 시도에 ‘문화유물보존사업소’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조선물질문화유물보존위원회’에서 설치하는 ‘보존관리위원회’는 ‘문화유물보존사업소’로 개편된 것으로 여겨진다.(1964.10.17) 그렇다면 ‘조선물질문화유물보존위원회’의 명칭과 편제도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로동신문 기사 상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금강산 문화유물보존사업소’에 목공, 석공, 기와공, 단청공이 소속되어 보현사, 표훈사 등을 원상대로 보수, 복구했다는 기사를 통해 당시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관리 양상에 대해 가늠해볼 수 있다.(1965.05.28)

1965년에는 ‘국토관리성 문화유물보존연구소’가 전국 100여개 이상의 문화유물, 유적을 고증하였고, ‘연구소 산하 고건축 연구실’에서는 각 도의 ‘문화유물보존사업소’에 문화유물 복구, 보수 자문을 하였다는 기사가 있다.(1965.08.11.) 1966년 기사에도 ‘국토관리성’이 각지의 지도사업을 강화중이며, 산하의 ‘문화유물보존연구소’에서 조사, 연구를 수행중이라는 기록이 확인된다.(1966.09.20.)

이후에는 관련 기사가 확인되지 않다가 1985년 ‘개성시 문화유적관리소’에서 대흥산성 복문을 유지보수했다는 기사를 통해 ‘문화유물보존사업소’가 ‘문화유적관리소’로 변경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1985.09.17.) 한편 1989년에는 ‘평양시 명승지 및 문화유적관리소’ 명칭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지역에 따라 유적과 명승지를 함께 담당하는 기관이 설치되었을 것이다.(1989.0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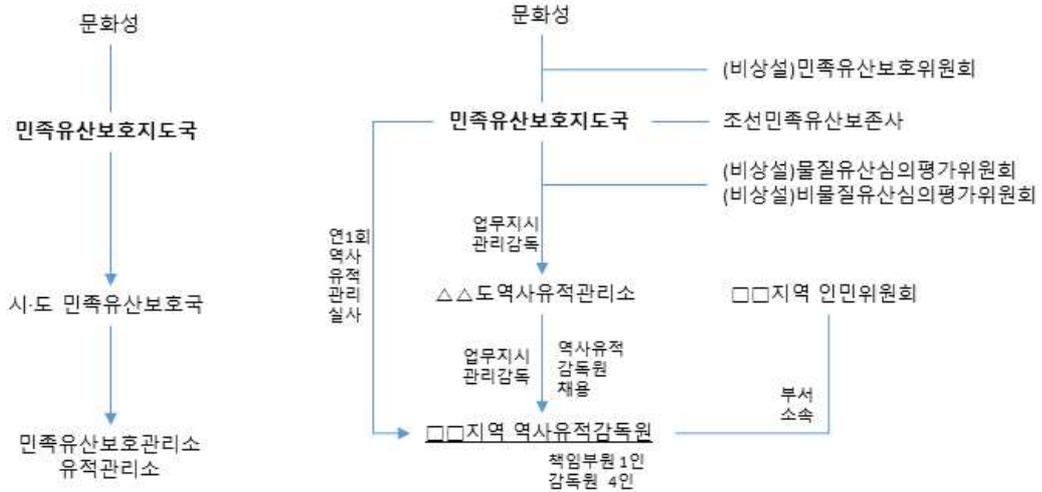
‘문화유적관리소’라는 명칭은 계속 이어지나 2011년 ‘문화보존지도국’(2011.11.17.) 또는 문화유적보존지도국(2011.09.26.)이라는 명칭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1994년에 제정된 <문화유물보호법>의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2013년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이 등장하는

데(2013.09.27.) 이때는 2012년 제정된 <문화유산보호법>이 시행되던 시기로 법률에서 정하는 용어와 중앙 관리기관의 명칭이 서로 맞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기사를 더 살펴보면 '민족문화유산'(2013.11.10.), '민족유산보호관리사업'(2014.05.18.), '강계시 민족유산보호관리소'(2014.11.21.), '개성시 민족유산보호관리소'(2014.11.22.), '개성시인민위원회 민족유산보호지도국'(2015.10.24.) 등 <민족유산보호법> 제정 이전에 이미 기관명에 민족유산이라는 명칭을 붙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후의 기사에서는 중앙은 '민족유산보호지도국', 시·군 단위는 '민족유산보호국', 유적 단위의 관리기관은 '민족유산보호관리소'와 '유적관리소'가 확인되었다.(표 11)

<표 11> 문화유산 관리조직과 편제의 변천

보도일자	내각	중앙	시·군 단위	유적 단위	시행 법령
1951.08.21.		조선물질문화유물 조사보존위원회			
1953.06.10. 1954.05.23.		조선물질문화유물 보존위원회	물질문화유물 보존위원회	유적보존관리위원회	
1963.06.18.	문화성				
1964.10.17.	내무성			문화유물보존사업소	
1965.08.11. 1966.05.28.	국토관리성	문화유물보존연구소			
1985.09.17. 1989.02.26.				문화유적관리소 명승지및문화유적관리소	
2011.11.17.		문화보존지도국			<문화유물보호법> (1994~2011)
2011.09.26.		문화유적보존지도국			
2013.09.27.		민족유산보호지도국			<문화유산보호법> (2012~2014)
2014.11.21. 2014.11.22.				민족유산보호관리소	
2015.10.24.			민족유산 보호국		<민족유산보호법> (2015~현재)
2017.04.24.				민족유산보호관리소	
2017.11.26.			민족유산 보호국	민족유산보호관리소 유적관리소	
2018.05.27.		민족유산보호지도국			

로동신문 기사에는 단순히 기관명칭만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로동신문으로 확인된 문화유산 관리기관의 소속과 편제는 추정에 가깝다(그림 8). 이를 지난 연구에서 증언을 통해 확인했던 편제와 비교한 결과(그림 9), 대체로 유사하다고 여겨지나 유적관리소의 등급이 로동신문에서는 유적단위였다면, 증언에서는 시·도 단위로 나타나 차이가 있다. 로동신문은 주로 평양, 개성, 강계시의 사례라면, 인터뷰를 했던 역사유적감독원은 북쪽 변방에서 근무했던 터라 지역적인



<그림 8> 로동신문으로 추론 <그림 9>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역사유적감독원의 편제  
한 문화유산 관리기관의 편제  
차이가 편제의 등급 차이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다.

#### 4) 북한 최고지도자와 문화유산

로동신문에서 확인되는 최고지도자의 행적과 전집류에 정리된 김일성, 김정일의 현지지도 기록은 차이가 크다. 김일성은 저작집과 전집에 수록된 문화유산 관련 현지지도 내용을 모으면 모두 32건이나, 로동신문에서 확인된 현지지도는 1978년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을 방문한 것만이 확인된다. 김정일전집에 수록된 문화유산 관련 김정일의 현지지도 기록은 총 43건이나, 로동신문에서 확인되는 현지지도는 2002년 량천사, 2003년 심원사, 2007년 정광사까지 3회 보도되었다. 김정일의 경우, 문화유산 관련 현지지도는 2012년 평양민속공원 건설현장을 방문한 1건만이 보도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이유는 로동신문 지면 자체가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정치, 경제 기사에 비해 문화유산 관련 현지지도 보도량은 적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현지지도 기사는 조선중앙통신이나 로동신문 기자 개인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 로동신문 정치지도반에 의해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하는 것으로 그러한 현지지도의 보도 여부는 당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지시나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해당 기사의 보도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을 것이라고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유산 관련 현지지도의 보도 수가 적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보도

된 현지도 사례만 소개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김일성의 현지도는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을 방문한 것으로(1978.02.13.) 로동신문 기사 추이에 의하면 문화유산 관계기사가 거의 보도되지 않던 2-1기에 해당한다. 앞서 이 시기를 주체사상의 도입으로 인한 공백기로 추정할 바 있다. 김일성이 전시에 만족했다는 것 외에 다른 자세한 내용은 보도되지 않았다. 이 한 건으로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것인지는 추정하기 어렵다.

김정일은 고난의 행군을 마치고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고려시대 사찰 3군대를 현지도 하였다. 이 시기는 문화유산 관계기사가 점차 증가하는 시기이다. 각 현지도의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훌륭한 문화유산을 많은 사람들이 편히 방문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이후 해당 유적관리소에서는 도로, 휴게실 공사 등이 추진되었다.

김정은의 현지도는 평양민속공원 건설현장 1건이 확인된다. 그가 방문하기 한 달 전 무렵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현지도하면서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도 하였다. 평양민속공원 현지도 이후 문화유산 관련 현지도는 더 이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선대와는 달리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삼지연혁명전적지, 신천박물관, 조선혁명박물관 등에 방문하고 현지도한 사례가 5년간 총 7차례나 보도된 점이 특징적이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신천박물관은 개건까지 하게 한 만큼 김정은 위원장은 문화유산보다는 혁명유산의 정치적 의미를 우선 또는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3-2기는 혁명유산 보도량이 다른 시기(2-1기 제외)에 비해 많은 편이라는 점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 IV. 연구결과

본 연구는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두 번째 연구이다. 2018년 1차 연구에서 제기되었던 북한 문화유산 관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북한의 공식자료를 통해 접근을 시도하였다. 한편으로 북한 문화유산 관리의 한 축인 최고지도자의 언행을 함께 고려하고자 하였다.

2차 년도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북한의 대표적인 공식기록들을 수집하였고

그중 로동신문 기사가 유용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통해 시기별 보도양상과 문화유산 관리조직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로동신문 기사를 통해 보도된 북한 최고지도자들의 문화유산 현지도 양상을 통해 그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과 활용에 대해 흥미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한편 그동안 문화유산분야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자료를 발굴했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는 의의를 지닌다. 로동신문은 지금까지 북한의 문화유산 연구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북한 로동당 기관지로서 북한 정권을 철저히 대변한다고 여겨짐에 따라 특히나 문화유산 분야에서는 유의미한 정보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북한 공식문서로서 로동신문에 주목하였고 문화유산 관계기사의 추이와 내용 분석을 통해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유의미한 패턴이 확인됨에 따라, 그 효용이 어느 정도 검증되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팀은 그간 북한의 문화유산 관계 법령 검토, 실제 유적관리 사례연구, 문화유산과 관련한 최고지도자의 교시와 현지도, 로동신문과 같은 공식 기록상에서의 문화유산 관계기사의 현황과 추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큰 틀에서 북한 문화유산 관리체계를 확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관리양상을 검토할 예정이다. 즉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꾸준한 자료 발굴과 적절한 연구방법론의 개발을 시도할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면서도 대표적인 문화유산 관리방법으로서 역사문화적 가치와 중요도에 따라 국가가 문화유산을 국보 등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가 존재하는데, 북한도 현행 <민족유산보호법>에 따라 문화유산의 등급을 평가 및 지정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따라서 북한의 지정 문화유산의 현황과 추이를 조사하고 그 관리 실태를 검토하는 것이 본 연구팀이 기획 중인 3차 년도 연구과제이다. 북한 지정문화유산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고고학계에서 사용중인 원격탐사기법의 적용을 검토중에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2020년도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김현우·이선복, 2019,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 현황 연구: 지방의 유적 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재』 52권 4호, 국립문화재연구소.
- 박대남, 2008, 『북한의 문화재 실태』, 통일부 통일교육원.
- 송승섭, 2011, 『북한자료의 수집과 활용』, 한국학술정보.
- 신현욱·박영정, 2014, 「북한의 무형문화유산 법제 도입 현황과 무형문화유산 분야 남북 교류 협력 방안」, 『한국민요학』 41, 한국민요학회.
- 오양열, 2003, 「북한의 문화재 정책과 남북 교류·협력 방안」, 『북한연구』 6, 명지대학교 북한연구소.
- 이기성, 2015, 「북한 선사고고학의 패러다임: 학사적 검토를 중심으로」, 『고고학』 14(3), 중부고고학회.
- 이선복, 1992, 「북한 고고학사 시론」, 『동방학지』 74.
- \_\_\_\_\_, 1997, 「최근의 단군릉 문제」, 『한국사 시민강좌』 21, 일조각.
- 이우영, 2016, 「‘고난의 행군’과 북한주민의 마음: 국가가 기억하는 ‘고난의 행군’」, 『통일문제연구』 제28권 1호.
- 이종석, 2019, 「‘변혁의 북한’,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북한연구 현황과 과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전문가토론회.
- 임상선, 2007, 「고구려·발해 역사의 공동연구를 통한 남북한 동질성 회복 방안」, 『국학연구』 10, 한국국학진흥원.
- 임상택, 2015, 「북한의 공산문화 연구 과정과 편년 논리」, 『고고학』 14(3), 중부고고학회.
- 전영선·신준영, 2016, 『북한의 문화재 정책과 남북 문화유산협력』, 통일부 통일교육원.
- 정은찬·문철훈, 2017, 「남북 문화유산의 교류협력 현황과 과제: 문화유적과 유물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3(1), 중원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정호섭, 2012, 「민족공동 문화유산관련 남북교류협력의 역사와 평가」, 『통일시대를 위한 민족문화자산 남북협력』, 통일부·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 최광식, 2017, 「통일시대 남북한 문화유산 교류와 협력」, 『박물관학보』 33, 한

국박물관학회.

통일교육원, 2018, 『2019 북한 이해』.

하문식, 2007, 「북한의 문화재 관리와 남북 교류」, 『정신문화연구』 제30권 제 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창균, 2013, 「북한 고고학사의 시기 구분 체계에 대하여」, 『한국상고사학보』 79, 한국상고사학회.

<부록> 로동신문 수록 문화유산, 혁명유산, 자연유산 관련 기사 목록

연번	연월일	기사 제목	면
1	19490224	쏘련군의 위훈을 길이 전할 중앙박물관 쏘련실을 증설	3
2	19500302	최고 인민회의를 경축하여 원시유적전람회를 개최 -국립중앙역사박물관에서	1
3	19500330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 보존위원회 사업 활발	1
4	19500530	유물조사사업 활발히 진행 - 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에서	1
5	19510725	우리 민족문화유물을 략탈하고 파괴하는 미제국주의 침략자들은 전인류문화의 원수이다	2
6	19510821	미제 원수들이 파괴략탈한 민족문화 유물들을 재정리 - 물질문화 유물보존위원회 일꾼들	3
7	19520428	개성지구의 문화 유물 보존 사업	3
8	19530304	조선 물질 문화 유물 조사 보존 위원회를 개편	1
9	19530525	희귀한 한대의 유물 - 청동제 '록로등'을 발견	3
10	19530528	민족 문화 유물 보존 관리 사업	3
11	19530610	민족 문화 유물 보존 사업에 당적 관심을 돌리자	2
12	19530712	고전 유물 발토 및 수집사업에 큰 성과	1
13	19530904	유물 보존 수집 사업에 노력	3
14	19531018	박물관들의 복구 및 개관준비사업 활발	1
15	19531216	함흥 역사 박물관 개관	3
16	19540116	박물관들이 속속 개관된다	3
17	19540523	문화 유물 보존에 노력	3
18	19540716	국립 중앙 역사 박물관 개관	1
19	19540717	우리나라의 고귀한 민족문화 유물들 - 문화 유물에 대한 인민의 사랑	3
20	19540717	선조들이 남긴 보물	3
21	19540717	옛 모습을 갖추는 고건물들	3
22	19540809	각종 건설 공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유적 유물들 보존 관리할 데 대한 내각 지시 발표	1
23	19540904	녕변읍의 고적 유물 보수 정리 사업	3
24	19541004	개성 역사 박물관에서 문화 유물 수집 및 보존 사업	1
25	19541022	문화 유물을 발굴	3
26	19550221	옛 모습 갖춘 문화 유물들	3
27	19550312	우리 나라의 고대 유물들	3
28	19550406	유적 유물 및 천연기념물 보존 관리 사업을 강화하자	3
29	19550510	문화 유물 전람회	3
30	19550606	문화 유물 보존과 역사 박물관	3
31	19550803	쏘련 문화 대표단 일행 중앙 역사 박물관을 방문	3
32	19550808	국립 중앙 해방 투쟁 박물관 보천보 분관 개관	1
33	19550825	국립 중앙 해방 투쟁 박물관에서	3
34	19550917	회령 오동 부락에서 원시시대의 유적 발굴 사업 진행	3

35	19550917	탄부들의 관광단 평양시내 건설장들과 국립 중앙 해방 투쟁 박물관 등을 참관	3
36	19550928	묘향산 특수 박물관에서 보존 관리하고 있는 문화 유물과 명승 고적	3
37	19551203	국립사리원 역사 박물관 개관	3
38	19560127	제7차 역사 박물관장 회의	1
39	19560129	물질 문화 유물 보존 위원회 지난 해 사업을 총화	1
40	19560304	국립 중앙 해방 투쟁 박물관에서	3
41	19560315	국립 중앙 해방 투쟁 박물관에서- 승리의 행로	3
42	19560421	국립 중앙 역사 박물관에서 유물 전시품들을 보충하고 진렬을 개편	3
43	19560830	공민 왕릉에서 고려시대 벽화 발굴	3
44	19560923	미제와 리승만 도배 미국에로의 남조선의 문화 유물 반출에 광분	3
45	19561114	평북 룡천군 신암리에서 원시 유적 발견	3
46	19570112	문화 유물 보존 관리 사업을 더욱 강화하자	3
47	19570525	평양시 복구건설 현장에서 귀중한 문화 유물 발굴	3
48	19570612	강원도에서 고분을 발굴	3
49	19571006	체코슬로바키야 박물관의 학자 평양에 도착	3
50	19571109	국립 중앙 미술 박물관 개관	3
51	19571117	기원 전 3세기 경의 청동기 유물들 다수 발굴	3
52	19580610	평양 제4건설 트레스트 노동자들 8.15 해방 15주년까지 2만 4천여 세대의 주택을 건설하며 노동궁전, 미술박물관, 대려관 등 건설의 촉진을 결의	2
53	19580808	미제와 리 승만 도배에 의하여 파괴 략탈된 남조선 문화 유물	4
54	19580903	고구려의 금동제 공예품을 발굴	5
55	19581003	조선 방문 중국 인민 대표단 조국 해방 전쟁 기념관과 중앙 해방 투쟁 박물관을 참관	3
56	19590112	연 건평 9천 여 평장미터의 국립 해방 투쟁 박물관 건설 공사 착공	1
57	19590325	평북 의주군에서 원시 유적 발견	5
58	19590509	조선 방문 헝그리아 사회 노동당 및 로농 혁명 정부대표단 조국 해방 전쟁 기념관과 국립 중앙 해방 투쟁 박물관을 참관	2
59	19590517	중국 인민 지원군의 전투 사적에 관한 유물 및 자료들을 중국 인민 해방군 군사박물관에 제공 -조국 해방 전쟁 기념관에서	4
60	19590708	대성산에서 고구려 시대의 조석품 발굴	3
61	19591114	박물관의 역할을 더욱 높여 혁명 전통 교양과 공산주의 교양에 기여하자 - 전국 박물관 일'군 협의회에서	2
62	19591222	일본에서 제1차로 귀국한 동포들 국립 중앙 해방 투쟁 박물관과 조국 해방 전쟁 기념관을 참관	3
63	19600312	전 공사량의 60% 이상이 진척된 중앙 해방 투쟁 박물관	3
64	19600405	문화 유물 보존 관리 사업을 일층 강화하자	3

65	19600519	공화국 내각에서 문화 유적 및 명승지 천연 기념물 보존 관리 사업을 개선 강화할 조치를 강구	2
66	19600625	신천 박물관 개관	5
67	19600712	7월 20일 전으로 건설 공사를 끝낼 국립중앙해방투쟁박물관	1
68	19600727	무산읍 범의 구석 및 웅기군 굴포리 서포항에서 원시 유적들을 발굴 - 과학원 고고학 연구소 일'군들	5
69	19610125	우리당의 빛나는 혁명 전통을 더욱 계승 발전시키자 -조선 혁명 박물관 새 자료들을 보충 정비하고 다시 개관	2
70	19610125	우리 나라 주재 각국 외교 대표들과 대사관 관원들 조선 혁명 박물관을 참관	4
71	19610429	알바니아 인민 공화국 정부 경제 대표단 조선 혁명 박물관과 평양 방직 공장을 참관	3
72	19610513	우리 고고학계가 거둔 커다란 성과 - 도유호 박사의 저서 <조선 원시 고고학>에 대하여	5
73	19610626	천추를 두고 용납 못할 미제 살인귀들에게 저주가 있으라! -신천 박물관 새로운 자료들을 보충 정비하고 다시 개관	3
74	19610722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정령 조선 혁명 박물관 개관 준비 사업에서 공훈을 세운 일군들에게 공화국 훈장 및 메달을 수여함에 관하여	2
75	19610722	조선 혁명 박물관 개관 준비 사업에서 공훈을 세운 일군들에게 공화국 훈장 및 메달과 내각 수상 표창장을 수여	2
76	19610815	국립 중앙 미술 박물관 개관	6
77	19610910	제4차 당 대회를 앞두고 국립 중앙 역사 박물관 다시 개관	5
78	19610915	형제 당 대표단들 조선 혁명 박물관과 공업 및 농업 전람관, 미술 박물관을 참관	10
79	19611022	헝그리아 인민 공화국 국가 회의 대표단 황해 제철소와 조선 혁명 박물관을 참관	2
80	19611023	비르마 련방 국회 대표단 김책공업대학과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	2
81	19620424	조선 혁명 박물관을 관람	3
82	19620503	중화 인민 공화국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대표단 조선 혁명 박물관 공업 및 농업 전람관을 참관	2
83	19621122	남부 월남 민족 해방 전선 대표단 조국 해방 전쟁 기념관과 신천 박물관을 참관	3
84	19621214	궁전, 성곽 건축의 정화 - 고려 시기의 건축	4
85	19621214	전국 박물관 일'군 학술 토론회 진행	4
86	19621214	기행 백마산성	4
87	19621215	강탈당한 국보와 문화 유물	4
88	19621217	전국 박물관 및 역사 유물 보존 부문 일'군 회의 진행	4
89	19630203	인민군 용사들 조선 혁명 박물관을 참관	4
90	19630504	함북도 웅기군 굴포리 서포항동에서 구석기 시대 유적 발견	1
91	19630525	<이동 박물관>을 통한 계급 교양 -강계 역사 박물관에서	3
92	19630605	보천보 박물관 개관	1,2
93	19630618	혁명 사적지와 문화 유물, 명승지, 천연 기념물들을 더 잘 관리 보존할 대책을 강구	6

94	19630705	구석기 유적 발굴과 우리 나라 역사 연구	4
95	19630801	조선 혁명 박물관 창립 15주년 기념회 진행	1
96	19630801	김일성 수상께서 조선 혁명 박물관 일'군들을 표창	1
97	19630801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에서 조선 혁명 박물관 일'군들에게 공화국 훈장 및 메달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 발표	1
98	19630801	조선 혁명 박물관 창립 15주년	4
99	19630911	디.엔.아이디트 동지가 인솔하는 인도네시아 공산당 대표단 조선 혁명 박물관을 참관	1
100	19631225	전국 박물관 및 문화 유물 보존 부문 일'군 학술 연구 발표회 진행	6
101	19631225	유구하고 찬란한 조선의 문화 (하)	6
102	19640421	호주 공산당 (맑스-레닌주의) 중앙 위원회 위원장 이. 에프. 힐 동지 조선 혁명 박물관을 참관	1
103	19640506	인도네시아 공산당 친선 대표단 조선 혁명 박물관을 참관	1
104	19640506	케니아 친선 대표단 조선 혁명 박물관과 공업 및 농업 전람관을 참관	3
105	19640601	벨기 공산당 중앙 위원회 대표단 조선 혁명 박물관을 참관	1
106	19640808	국립 중앙 역사 박물관 전시품들을 보충 정비하고 다시 개관	6
107	19640812	조선의 문화 유물을 약탈 파괴한 일제의 만행	6
108	19640814	전시품을 많이 보충 정비하고 국립 중앙 민속 박물관 다시 개관	6
109	19640905	문화 유물을 전 인민적으로 애호 보존하자	6
110	19640911	세일론 국회 대표단 조선 혁명 박물관을 참관	3
111	19640912	세일론 국회 대표단 공업 및 농업 전람관과 국립 중앙 미술 박물관을 참관	3
112	19641017	<공예유산> 맑고 섬세한 고조선의 거울	6
113	19641017	문화 유물을 잘 보존할 대책을 강구 - 내무성에서	6
114	19641024	삼국 시기의 우수한 건축, 공예	6
115	19641024	<공예유산> 정교롭고 단단한 신라의 도기	6
116	19641024	문화 유물과 유적들을 소중히 보존	6
117	19641026	앞잡이들을 통하여 귀중한 문화 유물들을 빼앗아 가고 있는 일제의 죄행	3
118	19641230	쓰러져 가는 신라 시대의 문화 유물	3
119	19650317	새로 발굴된 고조선 유물	6
120	19650507	선조들의 생활과 풍습을 연구하는 데 도움을 줄 300여 점의 문화 유물을 수집	6
121	19650507	풍부한 역사적 화폭 - 새로 발굴된 <금강산 전도>를 보면서	6
122	19650221	개성 남대문	6
123	19650221	조국의 역사와 자연을 연구하는데 도움을 줄 <유적 지도 편람>을 편찬	6
124	19650528	단장되는 금강산의 문화유적	6

125	19650605	손에 무장을 들고 조선 동지들이 발휘한 영웅주의에 대하여 탄복하게 된다 -우리 나라에 체류 중에 있는 인도네시아 소년 운동 지도 일군 대표단 인천 박물관과 평양시 내 학교들을 참관	3
126	19650614	파괴되고 도적 당하는 문화 유물	3
127	19650616	김일성 수상께 재일동포들로부터 보내온 편지와 선물을 조선 미술 박물관에 전시 -당과 정부 지도자들 전시품을 관람	1
128	19650623	미술의 보물고를 풍부히 한 유산들 - 총련에서 보내 온 선물 전람회 문화 유물 진렬실을 보고	6
129	19650811	문화 유물, 유적들을 새로 조사 발굴 - 국토 관리성 문화 유물 보존 연구소에서	6
130	19650813	새로 400여 종의 유물을 보충 정비하고 다시 개관 - 조선민속박물관에서	6
131	19650820	새로 알려진 로암리 고인돌떼	6
132	19651015	유적, 유물들과 천연 기념물을 소중히 보호 관리 -황남도에서-	6
133	19651015	허물어지는 영주의 문화 유물들	6
134	19650929	명승고적	6
135	19651019	헝그리아 사회 로동당 대표단 조선 혁명 박물관을 참관	2
136	19651023	중국 인민 대표단 조선 미술 박물관을 참관	1
137	19651105	로므니아 사회주의 공화국 내각 제1 부수상 공업 및 농업 전람관과 조선 미술 박물관을 참관	1
138	19651114	내려 앉게 된 귀중한 문화재-불국사, 석굴암	4
139	19651117	향토에 깃든 애국 선렬들의 투쟁 사료로써 근로자들을 교양	6
140	19651201	찬란한 문화 전통, 줄기찬 애국 투쟁의 력사 -조선력사 박물관 창립 20주년을 맞으며	6
141	19651202	조선 력사 박물관 창립 20주년을 기념	2
142	19651204	신석기 시대의 유물을 발굴	6
143	19651225	련광정	6
144	19660119	월남 력사 박물관과 총련으로부터 보내온 문화 유물들	6
145	19660126	미술 작품들을 보충 진렬 -조선 미술 박물관에서	6
146	19660130	나라의 문화 유물을 아끼는 인민군 장병들	3
147	19660202	의병들의 애국의 넋 깃든 삼지창, 가마, 묘갈명	6
148	19660209	귀중한 리조 시기의 금속 공예품 거북형 자물쇠	6
149	19660210	유구한 문화 전통을 보여주는 유물들 -조선 민속 박물관 창립 10주년을 맞으며	4
150	19660223	개성의 라성	6
151	19660302	총석정	6
152	19660312	서진과 동진에 깃든 투쟁 이야기	6
153	19660312	자기에 가까운 신라 도호	6
154	19660320	새로 발굴된 구석기 시대의 유물들	3
155	19660326	애국 력사의 혈서	6

156	19660331	고대의 유적과 유물 100여 점을 발굴 -함남도 북청군 중리에서	4
157	19660401	민간화 전람회 개관 -조선 미술 박물관에서	4
158	19660406	월은봉의 8용사	6
159	19660427	작업 현장에서 열린 조선 혁명 박물관 이동 전람회	2
160	19660427	유적과 문화 유물들을 보수 정비	6
161	19660427	고려 시기 록청자기의 생산 유적을 발굴	6
162	19660427	구석기 시대의 유물 발견	6
163	19660505	유물에 깃든 이야기	3
164	19660511	재일본 조선 대학 창립 열 돌을 기념하여 총련에서 보내온 문화 유물을 전시	3
165	19660511	우리 나라 구석기 시대 연구를 위하여 - 최근 남조선에서도 구석기시대 유물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남북의 유적과 유물에 대한 연구 성과를 호상 교류할 것을 제기한다.	6
166	19660511	공예 가치가 높은 순금 귀걸이	6
167	19660511	호평받는 이동 박물관	6
168	19660512	함흥 반룡산에서 고조선의 귀중한 유물들을 발굴	4
169	19660515	1만 2천여 점의 문화 유물을 발굴 -각지 박물관들에서	1
170	19660518	조국에 돌아온 옛 그림 -총련에서 보내온 문화 유물 전람회를 보고	6
171	19660518	자랑 많은 광석천	6
172	19660519	단장되는 평양의 문화 유물들	4
173	19660522	전국 박물관 일군 협의회 진행 -문화 유물을 통한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할 대책을 토의	1
174	19660522	혁명 전적지를 잘 꾸린다 - 량강도 5호 종합 농장에서	1
175	19660523	혁명 전적지에 깃든 항일선렬들의 애국 정신 -무산 지구 전적지를 찾아서	2
176	19660524	<광개토왕릉비>	4
177	19660526	혁명 전적지를 더욱 아름답게 -량강도내 각지 인민들	1
178	19660528	문화 유물들을 보수 정비 -함남도에서	6
179	19660601	청동기 때 유물을 발굴	6
180	19660601	출판화 전람회가 열렸다 - 조선 미술 박물관에서	6
181	19660629	인민들의 정성 담긴 민속 유물들	6
182	19660712	유물마다에 깃든 선조들의 뛰어난 재능 - 조선력사박물관에서 금속유물들을 새로 발굴	4
183	19660713	뛰어난 공예기술을 보여주는 화각롱	6
184	19660713	300여점의 청동기시기유물 발굴	6
185	19660824	3천여년전의 악기	6
186	19660824	<부령읍성 군기고>를 발굴	6
187	19660902	미국침략선 <사만호>격침 100주년을 맞이하여 각지 근로자들 조선 력사 박물관을 계속 방문	3
188	19660907	100여점의 고려활촉을 발굴	6

189	19660912	120여종의 유물을 새로 보충 임진조국전쟁 때 유물들도 전시 - 청진력사박물관에서	4
190	19660913	청동기때의 유물인 돌상자무덤을 발굴 - 해주력사박물관에서	4
191	19660915	혁명박물관은 조선인민과 세계자유애호인민들을 교양하는 항구적인 대학이다 -아련 <알 굴후리아>신문 주필부부 각지를 참관	3
192	19660920	국보적 가치가 있는 유적들을 옛모습대로 잘 꾸린다 - 각 도 문화유물보존사업소들에서	1
193	19661001	유적과 유물들을 정상적으로 정비보수한다	6
194	19661114	파괴되고 도적당하는 남녘의 문화유물	3
195	19661123	500여점의 민속유물을 수집	6
196	19661126	고조선시기 유물을 발굴	6
197	19661129	이동박물관	2
198	19670115	선조들의 문화유물을 보호하라	3
199	19670118	고조선시기의 유물이 나왔다	6
200	19670119	민족문화유산계승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	2~3
201	19670125	불국사	6
202	19670205	찬란한 문화전통 - 각 박물관들에서 지난해 1만점 이상의 문화유물을 찾아내었다	4
203	19670208	천하의 명물 -조선의 도자기를 두고	6
204	19670208	고려시기의 칼	6
205	19670210	서울에서 백제시기의 문화유물을 발굴	3
206	19670211	찬란한 문화 자랑찬 애국전통 -각 박물관들에서 지난해에 1만점 이상의 문화유물을 찾아내었다	6
207	19670215	신라의 금동공예품	6
208	19670225	새 작품들로 더욱 빛나게 꾸려진 조선미술박물관	6
209	19670308	외적을 치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린 리정의 이야기	6
210	19670308	1,400년 자란 은행나무	6
211	19670604	영원히 그날의 혁명정신을 이어 -보천보박물관을 참관하고	2
212	19670831	문화유물을 훔쳐가는 일본놈도적들	3
213	19670904	모두다 수령의 참된 혁명 전사로 되기 위하여 -신의주력사 박물관에서 김일성 동지의 혁명적가정과 초기혁명활동을 보여주는 이도아진 전람실을 운영한다	2
214	19680301	일본공산당대표단이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하였다	2
215	19680416	김일성동지의 령도하에 진행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은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 세계혁명운동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었다 -독일민주주의공화국당및정부대표단이조선혁명박물관과공업 및농업전람관을참관하였다	3
216	19680418	조선인민은 현명한 수령이신 김일성수상의 주위에 굳게 단결되어있기때문에 승리를 거둬고있다 -기네공화국정부경제대표단이조선혁명박물관을돌아보았다	3
217	19680801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박물관 일군들을 표창하시였다 -공화국훈장 및 메달 수여식도 있었다	1

218	1968080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이룩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자! -조선혁명박물관창립20주년기념회가있었다	1~2
219	19680811	미제침략자들이 만약 조선에서 또다시 침략전쟁을 도발한다면 놈들은 1950년 전쟁때보다 더 심대한 타격을 받고 패배당할것이다 -기네공화국군사대표단이만경대와김일성군사대학,판문점과신천박물관을참관	4
220	19680902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이의 탁월한 령도는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 -공화국창건20주년을앞두고조선혁명박물관을찾아수령의영광스러운혁명력사를배우는각지근로자들	1
221	19680903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를 통하여 우리는 혁명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배웠다 -우리나라에온각국대표단만경대와조선혁명박물관을참관	6
222	19680905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그이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전사가 되겠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20주년재일본조선인축하단이만경대와조선혁명박물관을참관	5
223	19680923	우리들은 김일성원수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의 높은 뜻을 받들어 조국통일의 혁명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겠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20주년재일본조선인축하단이신천박물관,평양시와그주변을돌아보았다	4
224	19680927	웁그리아인민공화국 국가회의대표단 조선혁명박물관과 김일성종합대학을 참관	3
225	19681127	위대한 혁명력사, 빛나는 혁명전통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아서 (1)	2
226	19681203	위대한 혁명력사, 빛나는 혁명전통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아서 (2)	2
227	19681212	위대학 혁명력사, 빛나는 혁명전통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아서 (3)	2
228	19690416	서부독일공산주의자그루빠 성원들이 조선혁명박물관과 공장, 문화기관들을 돌아보았다	4
229	19690416	서부독일공산주의자그루빠 성원들이 평양 시내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4
230	19690518	일조협회 리사장 하다나까마사하루부부가 만경대와 조선혁명박물관 참관	3
231	19690530	남부예멘인민공화국 까흐탄 무함마드 앗샤아비대통령이 조선혁명박물관과 조국해방 전쟁기념관을 참관하였다	2
232	19690628	스웨리에공산주의자좌익당대표단이 만경대와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하였다	2
233	19691108	조선혁명박물관은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혁명정신을 보여주고있다 -수리아아랍공화국정부경제대표단이조선혁명박물관을비롯한 평양 시내 여러곳을참관	4

234	19700131	조선혁명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의 불패의 힘에 의하여 쌓아진 영웅적투쟁의 력사이다 -구바전국문화위원회부위원장이조선혁명박물관과천리마경상유치원및탁아소,공업및농업전람관,천리마평양동흥녀자중학교를돌아보았다	4
235	19700515	조선혁명박물관은 김일성동지의 천재적인 전략가로서의 창조성과 정치가로서의 위대성을 보여주고있다 -헝그리아애국인민전선전국리사회및전국평화리사회대표단이 만경대를방문,조선혁명박물관을비롯하여평양시내여러곳을참관	4
236	19700714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범적으로 사업한 신천박물관 일군을 표창하시였다 - 공화국훈장 및 메달 수여식도 있었다	1
237	19700715	우리 나라에 머무르고있는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외무성 국무비서와 그 일행이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하여 여러곳을 참관	5
238	19700717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외무부상과 그 일행이 유서깊은 만경대와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하였다	4
239	19700805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로선에 따라 조선인민이 발휘한 영웅주의를 조선혁명박물관은 잘 보여주고있다 -오지리공산당대표단이조선혁명박물관을비롯한평양시내여러곳을돌아보았다	3
240	19700819	조선혁명박물관은 김일성수상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위대한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모리셔스조선친선협회대표단이유서깊은만경대를방문,조선혁명박물관을비롯한시내여러곳을참관	4
241	19710214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보천보혁명박물관 창립 열다섯돛에 즈음하여 이 박물관 일군을 표창하시였다 - 공화국훈장과 메달 수여식도 있었다	1
242	19710320	월남인민대표단이 유서깊은 만경대를 방문,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	4
243	19710411	수리아녀성총동맹대표단이 유서깊은 만경대를 방문,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	3
244	19710416	중국과학원대표단이 혁명의 요람 만경대를 방문, 조선혁명박물관과 평양시내 여러곳을 참관	5
245	19710708	쏘련당및정부대표단이 유서깊은 만경대를 방문,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하여 평양시내 여러곳도 참관	2
246	19710728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한 캄보자국가원수이며 캄보자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일행의 일부 성원들이 조선혁명박물관과 천리마청산협동농장을 돌아보았다	4
247	19710728	헝그리아농업, 산림및수리로동자직맹대표단이 유서깊은 만경대를 방문, 우리 나라 여러곳을 참관	4
248	19710728	만경대의 력사는 세계 모든 혁명가들의 정신적 원천인 혁명투쟁전통으로 가득차있다 - 수리아농민총동맹대표단이 유서깊은 만경대를 방문,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하여 여러곳을 참관	4
249	19711006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군장관대표단이 조선혁명박물관건설을 도와주었다	7

250	19711027	제5차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조선혁명박물관건설을 도왔다	4
251	19720403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 탄생 예순둑 재일조선인축하단이 대기념비적건물인 조선혁명박물관건설을 도왔다	3
252	19720425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그이께 영원히 충성다하리! -우리당과조선인민의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동상제막과조선 혁명박물관개관식성대히진행	1, 3
253	19720425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 제막과 조선혁명박물관 개관식에서 한 내각제1부수상 김일동지의 연설	2
254	19720425	조선혁명의 불멸의 대기념비이며 혁명적교양이 전당인 조선혁명박물관	4
255	19720506	캄보자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하였다	1
256	19720524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위원장의 일행 일부성원들이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하였다	1
257	19720719	과들루쁘로동총련맹 서기장부부가 유서깊은 만경대를 방문,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하여 여러곳을 참관	4
258	19720928	로므니아농업, 식료공업및수리로동자직맹대표단이 유서깊은 만경대와 봉화혁명사적지를 방문,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한 여러곳을 참관	4
259	19721003	쏘련직맹대표단이 유서깊은 만경대를 방문,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한 여러곳을 참관	5
260	19721003	일본 다까마쯔즈까고분종합학술조사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일본을 방문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자 대표단이 도쿄에 도착하였다. - 수많은 총련일군들과 각계층 재일동포들, 일본의 각계 대표들이 비행장에 나와 대표단을 열렬히 환영, 일본의 민주단체의 주최로 성대한 환영모임 진행	5
261	19721003	일본 다까마쯔즈까고분종합학술조사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일본을 방문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자대표단 김석형단장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5
262	19721004	이탈리아농업로동자,기술자,사무원련맹대표단이 혁명의 요람 만경대와 봉화혁명사적지를 방문 -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한 여러곳을 참관	6
263	19721009	중국인민해방군 축구선수단이 혁명의 요람 만경대를 방문 - 조선혁명박물관과 각지를 참관	4
264	19721011	빠루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인 빠루기자련맹 위원장과 그의 가족이 조선혁명박물관과 평양 시내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5
265	19721026	조선혁명박물관을 남북적십자회당 제3차회의에 참가했던 남조선측 성원들이 참관	3
266	19721026	민족의 영예를 빛내인 가장 영광스러운 력사 - 남북적십자단체들의 본회담 제3차회의에 참가한 남조선측 성원들과 함께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하고	3
267	19721028	헝그리아애국인민전선대표단이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하여 여러곳을 참관	4
268	19721107	캄보자민족통일전선 및 캄보자왕국 민족연합정부친선대표단이 혁명의 요람 만경대를 방문,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	2

269	19721107	로므니아군대 <쓰페아와>청년축구선수단이 유서깊은 만경대를 방문,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하고 판문점을 돌아보았다	4
270	19721110	조선혁명박물관은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혁명투쟁경험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배움터이다 -에스빠냐공산당대표단이조선혁명박물관과전승사적관을참관	2
271	19721110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정부무역대표단이 유서깊은 만경대를 방문,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	4
272	19721110	고구려벽화무덤자료전시회가 일본 나고야시에서 열렸다	4
273	19721110	중국 베이징친선대표단이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여러곳을 참관	5
274	19721113	프랑스국민회의 외교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유서깊은 만경대를 방문,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하여 여러곳을 참관	3
275	19721114	베루공산당대표단이 조선혁명박물관 참관, 평양시와 평남도내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4
276	19721115	캄보쟈국가원수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하였다	1~2
277	19721115	헝그리아인민공화국 문화대표단이 혁명의 요람 만경대를 방문 -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하여 평양시내 여러곳을 참관	2
278	19721120	쏘련림업대표단이 유서깊은 만경대를 방문,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한 평양시내 여러곳을 참관	4
279	19721120	헝그리아인민공화국 문화대표단이 혁명의 요람 만경대를 방문 -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하여 평양시내 여러곳을 참관	4
280	19721122	일조체육교류촉진련맹대표단이 혁명의 요람 만경대를 방문,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한 여러곳을 참관	5
281	19721126	중국인민은행 및 중국은행대표단이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여러곳을 참관	4
282	19721207	로므니아 띠미쇼아라 <바나뿔> 가무단이 혁명의 요람 만경대를 방문,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	4
283	19721209	중국친선참관단이 혁명의 요람 만경대를 방문,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한 평양시내 여러곳을 참관	5
284	19721213	헝그리아탁구선수단이 유서깊은 만경대를 방문, 조선혁명박물관과 평양학생소년궁전 참관	6
285	19721220	기네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이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	2
286	19721220	뿔스까력사교원대표단이 조선민속박물관과 천리마미곡협동농장을 돌아보았다	4
287	19730110	쿠바혁명수호위원회대표단이 혁명의요람 만경대를 방문,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한 여러곳을 참관	6
288	19730124	체스꼬슬로벤스꼬텔레비죤방송대표단이 유서깊은 만경대를 방문,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한 여러곳을 참관	5
289	19730126	월남민주공화국 정부경제대표단이 조선혁명박물관과 인민경제대학을 참관하였다	2
290	19730203	다오메공화국 정부대표단이 유서깊은 만경대를 방문,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	4
291	19730228	별가리아교육대표단이 유서깊은 만경대를 방문,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한 평양시내 여러곳을 참관	5
292	19730312	중국남녀배구선수단이 유서깊은 혁명의 요람 만경대를 방문,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한 평양시내 여러곳을 참관	3
293	19730409	애급정부군사대표단이 혁명의 요람 만경대를 방문, 조선혁명박물관과 김일성군사종합대학도 참관	2

294	19730410	알바니아외교부대표단이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하여 평양시내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3
295	19730414	일본사회당대표단이 혁명의 요람 만경대를 방문, 조선혁명박물관과 조선로동당인민경제대학을 참관	5
296	19730424	헝그리아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일행이 판문점과 신천박물관을 돌아보았다	4
297	19730429	파키스탄예술단이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하였다	4
298	19730503	조일친선탁구일본대표선수단이 유서깊은 만경대, 봉화혁명사적지를 방문, 조선혁명박물관과 평양시내 여러곳을 참관	5
299	19730507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연방의회대표단이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	2
300	19730509	칠레사회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국회 하원의원인 칠레공화국 대통령 누이동생과 그 일행이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하여 여러곳을 참관	4
301	19730511	중국녀성대표단이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하여 평양시내 여러곳을 계속 참관	4
302	19730516	수단민주주의공화국 외교부 유엔및국제기구국장이 판문점과 신천박물관을 돌아보았다	5
303	19730518	중국원양운수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 조선혁명박물관과 중앙공업및농업전람관도 참관	5
304	19730605	뽀스까당및세임대표단이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여러곳을 참관	4
305	19730618	일본나고야녀성대표단이 혁명의 요람 만경대를 방문,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하여 여러곳을 참관	3
306	19730716	네팔녀성대표단이 혁명의 요람 만경대를 방문, 조선혁명박물관 등 여러곳을 참관	4
307	19730719	몽조친선협회대표단이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하여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5
308	19730719	남조선에서 귀중한 문화재가 계속 약탈당하고 있다	5
309	19730726	캄보자국가원수이며 캄보자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이 조선미술박물관을 참관	1
310	1973073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박물관 일군들을 국가표창하시고 귀중한 선물을 보내시었다	1
311	19730731	조선혁명박물관창립 스물다섯돐기념보고회가 있었다	1, 3
312	19730801	주체사상교양의 전당, 영원한 혁명의 보물고 - 조선혁명박물관창립 25돐에 즈음하여	2
313	19730801	(외국사람들의 소감) 조선혁명박물관을 보고	2
314	19730801	불멸의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며	2
315	19730801	경모의 정 뜨겁게 타오르는 충성의 언덕	2
316	19730805	보쯔와나공화국 정부대표단이 유서깊은 만경대를 방문,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	4
317	19730920	<혁명적교양의 전당-조선혁명박물관> -신화통신기자의 참관기	6
318	19730921	제11, 12차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하여 여러곳을 참관	4
319	19740114	전국농업대회에 참가했던 협동농민열성자들과 간부들이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하여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4

320	19740301	잠비아공화국 외교부장과 그 일행이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하였다	2
321	19740318	잠비아민족통일독립당대표단이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한 여러곳을 참관	4
322	19740319	쏘련대표단이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하여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5
323	19740405	아프리카통일기구해방위원회친선대표단이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	4
324	19740407	캄보자민족통일전선 및 캄보자왕국 민족연합정부대표단이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	1
325	19740423	부룬디민족통일진보당대표단이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한 여러곳을 참관	3
326	19740507	위대한수령김일성주석님의 탄생 예순두돛을 축하하기 위하여 조국에 온 재일조선인예술단이 판문점과 신천박물관을 참관	4
327	19740517	세네갈공화국 레오벨드 쉐다르 쉐고르대통령이 조선미술박물관을 참관	2
328	19740527	벨가리아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인 벨가리아유엔상임대표가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하여 여러곳을 참관	5
329	19740604	로므니아공산당 당일군대표단이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하여 여러곳을 참관	5
330	19740611	헝그리아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이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하여 여러곳을 참관	4
331	19740716	메히고공산당대표단이 조선혁명박물관과 당창건사적관을 비롯하여 여러곳을 참관	4
332	19740812	아르헨띠나소년대표단이 조선혁명박물관과 여러곳을 참관	4
333	19740814	로므니아<마라무레슈>가무단이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하여 여러곳을 참관하였다	6
334	19740824	세네갈전국기자협회대표단이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하여 여러곳을 참관	5
335	19740923	일본사회당 부이활동가대표단이 조선혁명박물관과 평양종합방직공장을 참관하였다	4
336	19741003	뿔스까인민통일전선대표단이 혁명의 요람 만경대를 방문 -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하여 여러곳을 참관	5
337	19750111	전국농업대회 참가자들이 조선혁명박물관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참관	4
338	19750430	쏘련과학기술협조대표단이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한 여러곳을 참관	5
339	19750512	애급아랍공화국 민족리사회대표단이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하여 여러곳을 참관	3
340	19750825	제2차중국친선참관단이 개성지구와 신천박물관, 평양지하철도를 참관	6
341	19750901	중국예술단이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	4
342	19750901	중국텔레비죤촬영대표단이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하여 여러곳을 참관	5
343	19750914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은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우러러모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한덕수의장을단장으로하는총련대표단이조선혁명박물관을참관	2

344	19750914	중국청년대표단이 조선혁명박물관과 여러곳을 참관	5
345	19751020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스러운 혁명활동력사를 보여주는 화첩 <조선혁명박물관>상권을 일본에서 영어로 출판	2
346	19751028	마리암 프라오레녀사가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	3
347	19751111	뿔스까 정부대표단이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하여 여러곳을 참관	4
348	19751130	벨기리아인민공화국 인민회의대표단이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하여 여러곳을 참관	4
349	19751209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정부대표단이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하여 여러곳을 참관	4
350	19751227	산토메 프린시페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부인이 평양 9. 15주탁아소와 조선민속박물관을 참관	3
351	19760219	벨기리아인민공화국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조선혁명박물관, 평양 9. 15주탁아소, 조선예술영화촬영소를 참관	3
352	19760220	벨기리아인민공화국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평양학생소년궁전과 조선미술박물관, 조선민속박물관을 참관	3
353	1976022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보여주는 대화첩 <조선혁명박물관>하권 영문판을 일본에서 출판	1
354	19760504	네팔왕국 민족판차야트 위원 키르티 니디 비스타부부가 조선혁명박물관과 여러곳을 참관	5
355	19760510	중국인민해방군가무단이 조선혁명박물관과 여러곳을 참관	4
356	19760516	무싸 프라오레각하의 부인 마리암 프라오레녀사가 조선미술박물관을 참관	3
357	19760604	유엔주재 모리셔스상임대표부부가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하여 여러곳을 참관	4
358	19760606	말가슈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의 부인이 평양 9. 15주탁아소와 조선민속박물관을 참관	3
359	19760624	쏘련공산당 당일군대표단이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하여 여러곳을 참관	5
360	19760712	베닌인민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 일행의 일부성원들이 조선혁명박물관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참관	3
361	19760727	말가슈에서 진행될 <주체사사에 관한 국제과학토론회>준비위원회위원장과 그 일행이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하여 여러곳을 참관	5
362	19760809	말리공화국 국가수반의 자녀들이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하여 여러곳을 참관	4
363	19760811	세레제 카마대통령각하의 부인이 평양 9. 15주탁아소와 조선미술박물관을 참관	3
364	19761105	제2차중국친선참관단이 봉화혁명사적지와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하여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4
365	19770204	조선인민군창건 29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대사관 무관들이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	4
366	19770504	가이아나협동공화국 대통령부인이 평양 9. 15주탁아소와 조선미술박물관을 참관	3
367	19770512	제1차중국친선참관단이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하여 함남도와 강원도안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5
368	19770512	60만 재일동포들의 충성의 편지전달계주단이 칠골혁명사적지를 방문 여러곳을 참관	5

369	19770529	헝그리아사회로동당 당일군대표단이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하여 평양시안의 여러곳을 참관	5
370	19770603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승리 마흔뉘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에 와있는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이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 -외교부에서영화감상회와소연회를마련	3
371	19770603	보천보혁명박물관창립 25돐 기념보고회가 있었다.	3
372	19770620	프랑스신문 <몽드> 주필부부와 그 일행이 조선혁명박물관과 여러곳을 참관	4
373	19770625	벨가리아녀성대표단이 조선혁명박물관과 평양지하철도를 참관	4
374	19770625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는 물러가야 한다 - 수리아아랍공화국 변호사협회대표단이 조선혁명박물관과 여러곳을 참관	5
375	19770625	중앙아프리카제국 황제의 특별고문이 조선미술박물관을 참관하고 교예공연을 보았다	5
376	19770813	중국중앙악단이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	5
377	19770828	이오씨프 브로즈 찌뜨동지와 함께 온 일부 수원들이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을 참관	3
378	19770915	적도기네공화국 종신대통령 부인 빈당 마씨에 느게마 비요고 네겐동녀사가 조선미술박물관과 중화고등중학교를 참관	7
379	19770923	우 네 원대통령각하의 딸과 일행의 일부 성원들이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을 참관	3
380	19771009	로므니아공산당 당일군대표단이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하여 여러곳을 참관	5
381	19771011	조선혁명박물관은 전세계 혁명가들의 투쟁을 언제나 고무할 것이다 -방글라데슈조선친선협회대표단이여러곳을참관	5
382	19771018	말가슈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의 자녀들이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	4
383	10771018	리비아아랍사회주의인민공동체농업대표단이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하여 여러곳을 참관	5
384	19771027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및중조우호협회대표단이 조선혁명박물관과 여러곳을 참관	5
385	19771028	중앙아프리카제국 황제의 특별고문부부가 유서깊은 만경대를 방문,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	5
386	19771029	말가슈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의 부모가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하여 여러곳을 참관	4
387	19771220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에 참가하였던 대의원들이 봉화혁명사적지와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	3
388	19771224	또고인민연합대표단이 조선혁명박물관을 돌아보았다	5
389	19780211	중앙아프리카제국 황제의 특사가 조선미술박물관을 돌아보았다	4
390	1978021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을 돌아보시였다	1
391	19780515	미국신문 <가디언>주필이 조선혁명박물관과 여러곳을 참관	6
392	19780516	일본사회당대표단이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을 참관	4
393	19780519	제1차중국친선참관단이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하여 평양시와 지방의 여러곳을 참관	6

394	19780527	짐바브웨아프리카민족동맹대표단이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	3
395	19780608	재일조선상사일군대표단이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하여 여러곳을 참관	5
396	19780610	또고공화국 정부수력및농업건설대표단이 조선혁명박물관과 여러곳을 참관	4
397	19780610	노르웨이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이 조선혁명박물관과 여러곳을 참관	5
398	19780613	별가리아공산당 당일군대표단이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하여 여러곳을 참관	5
399	19780620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 일본위원회 제3차대표단이 조선혁명박물관과 여러곳을 참관	6
400	19780705	네팔예술단이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하여 여러곳을 참관	5
401	19780801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만대에 빛내여가자 -조선혁명박물관창립30돐에 즈음하여	2
402	19780801	각지 근로자들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아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깊이 학습	2
403	19780908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국가미당대표단이 중앙공업및농업전람관과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을 참관	11
404	19780914	말가슈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 부인이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을 참관	3
405	19780921	한덕수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돐 재일조선인축하단이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을 참관	4
406	19781009	독일사회통일당 당일군대표단이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하여 여러곳을 참관	5
407	19781025	제50차, 제51차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하여 여러곳을 참관	5
408	19781107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장의 특사가 조선혁명박물관과 평양학생소년궁전을 참관	4
409	19781123	총련지부일군대표단이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하여 여러곳을 참관	5
410	19781124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만대에 찬연히 빛날것이다 -제53차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조선혁명박물관을비롯하여여러곳을참관	5
411	19781204	말따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이 조선중앙력사박물관과 평양학생소년궁전을 참관	3
412	19781223	일본사회당대표단이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을 참관	4
413	19790306	애급아랍공화국 대통령의 특사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을 참관	4
414	19790329	헝그리아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이 국제친선전람관과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을 참관	8
415	19790331	재일조선인과학자대표단이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하여 여러곳을 참관	6
416	19790413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정부대표단이 평양학생소년궁전과 조선미술박물관을 참관	4
417	19790425	여러 나라 탁구선수단들과 대표들이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하여 여러곳을 참관	6
418	19790430	여러 나라 탁구선수단들과 대표들이 조선혁명박물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평양시안의 여러곳을 참관	5

419	19790505	총련모범분회일군대표단이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하여 여러곳을 참관	5
420	19790507	제35차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여러 나라 탁구선수단과 대표들이 조선혁명박물관과 국제친선전람관을 비롯하여 여러곳을 참관	5
421	19790519	재일조선체육관계일군대표단이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하여 여러곳을 참관	6
422	19790528	가이아나에 있는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연구센터> 서기장인 조선통일지지가이아나위원회 서기장이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하여 여러곳을 참관	6
423	19790529	하쉐미트요르단왕국 국회대표단이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을 참관	4
424	19790605	중국정부문화대표단이 조선혁명박물관과 국제친선전람관, 조선예술영화촬영소를 참관	4
425	19790605	제58차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하여 여러곳을 참관	5
426	19790619	총련지부일군대표단이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하여 여러곳을 참관	5
427	19790702	콜롬비아자유당대표단이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하여 여러곳을 참관	4
428	19790727	중국경극단이 조선혁명박물관과 조선예술영화촬영소를 참관	4
429	19790914	재일조선인축하단이 조선혁명박물관과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	4
430	19791005	가이아나협동공화국 총리의 딸부부가 조선혁명박물관과 여러곳을 참관	4
431	19800324	르완다공화국 정부대표단이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	4
432	19800330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예순여덟돐 재일조선인축하단이 조선혁명박물관과 창광원을 참관	3
433	19800412	우리 나라에 와있는 여러 나라 대사관 무관들이 만경대와 칠골혁명사적지를 방문,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	4
434	19800609	가이아나방위군대표단이 조선혁명박물관과 여러곳을 참관	4
435	19801018	말디브제도공화국 정부대표단이 조선미술박물관을 참관	7
436	19810317	일본사회당대표단이 조선민속박물관을 참관	2
437	19810511	독일사회통일당 국제부대표단이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	6
438	19810722	쁘르뚜갈공화국 전 대통령이 조선혁명박물관과 평양시내 여러곳을 참관	4
439	19810808	베닌인민공화국 대통령특사가 국제친선전람관과 묘향산의 문화유적들을 참관	4
440	19810809	새로 발굴된 남경유적	4
441	19811017	<배달신보>발행인이며 국제태권도련맹 총재인 최흥희선생과 일행이 국제친선전람관과 묘향산의 문화유적들을 참관	8
442	19811023	베닌인민공화국 외무및협조부장이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을 참관 - 평양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을 관람	9

443	19811024	만경대는 해가 흐를수록 김일성주석의 혁명위업을 아로새기고 길이 빛내고있다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제7차대회에참가하기위하여온여러나라대표단들과대표들이만경대를방문,김일성동지로작전람관과조선혁명박물관을참관	10
444	19811026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제7차대회에 참가하였던 대표들이 조선혁명박물관과 평양산원을 참관	6
445	19820418	잠비아민족통일독립당 위원장이며 잠비아공화국 대통령인 켄네스 다비드 카운다각하가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	9
446	19820608	부룬디공화국 군사친선대표단이 조선혁명박물관과 여러곳을 참관	4
447	19820613	여러가지 종류의 희귀한 고려시기유물이 발견되었다	4
448	19820618	미국에 있는 <조국민주회복남가주국민회의> 수석의장 차상달선생이 조선혁명박물관과 여러곳을 참관	5
449	19821109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민족재건 군사위원회 위원장 부인이 조선미술박물관과 평양 9. 15주탑아소를 참관	4
450	19830208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장의 특사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을 참관	4
451	19830301	예멘아랍공화국 대통령의 특사가 조선혁명박물관과 여러곳을 참관	4
452	19830326	기네-비사우공화국혁명리사회위원장의 특사가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하여 평양시내 여러곳을 참관	4
453	19830408	여러 나라 대사관 무관들이 조선혁명박물관과 백송혁명사적지, 인민대학습당을 참관	4
454	19830507	탄자니아련합공화국 대통령의 동생과 아들이 조선혁명박물관을 비롯하여 여러곳을 참관	5
455	19830515	평양에서 오랜 유적들이 계속 발굴된다	4
456	19830802	조선혁명박물관창립 35돐 기념보고회 진행	3
457	19830907	공화국창건 35돐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온 기네인민혁명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이 조선혁명박물관과 대안중기계종합공장을 참관	14
458	19830907	공화국창건 35돐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온 말리공화국 국회대표단이 칠골혁명사적지와 평양시내 여러곳을 참관	14
459	19840304	금강산에서 500여년전의 유물들을 발견	4
460	19840318	<남경유적에 관한 연구>와 <세나라 시기의 리두에 대한 연구>를 출판	4
461	19850629	대로천혁명박물관으로	3
462	19850708	재일조선인감사단이 어은혁명사적지와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을 참관	3
463	19850806	문화유적유물들을 더 잘 보존관리하자	1
464	19850917	문화유적유물들을 옛모습그대로 - 개성시문화유적관리소에서	4
465	19851117	고구려시기의 우물 처음 발굴 - 평양시 대성구역 고산동에서	4
466	19851128	문화유적관리를 착실히 - 평양시문화유적관리소에서	4
467	19851207	조선중앙력사박물관창립 40돐 기념보고회 진행	3
468	19860810	다시 찾은 문화유물들 - 해외동포들이 보내온 유물전시회장을 찾아서 (1)	4

469	19860817	민족의 재능과 지혜가 깃든 문화유물 - 해외동포들이 보내온 유물전시회장을 찾아서 (2)	4
470	19860921	김정일명칭 제1차 뿔스까청년단이 신천박물관을 비롯하여 여러곳을 참관, 호소문을 발표	4
471	19860928	김정일명칭 제1차 뿔스까청년단이 조선미술박물관과 인민대학습당을 참관	6
472	19870322	구석기시대의 유적을 새로 발굴	4
473	19870405	나라의 귀중한 문화 유적과 유물을 적극 애호관리하자	5
474	19870524	구석기시대의 유적을 새로 발굴	4
475	19871001	한 자연박물관의 표본에도	4
476	19880730	조선혁명박물관창립 40돐기념과학토론회 진행	4
477	19880731	조선혁명박물관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교양의 위력한 거점	3
478	19880801	조선혁명박물관창립 40돐 기념보고회 진행	3
479	19880814	구석기, 신석기 시대의 유적을 발굴	4
480	19880826	조선미술박물관창립 40돐 기념보고회 진행	4
481	19880920	백두산밀영을 중심으로 하는 북부조선일대에서 발굴된 혁명 유적, 유물들	2
482	19881023	역사유물자료를 총집성한 귀중한 재보 - <조선유적유물도감> (전20권)의 첫권을 발행	4
483	19881119	백두산혁명전적지를 혁명전통교양의 대로천박물관으로 더욱 훌륭히 꾸리자 -전국당사상부문일군돌격대원들의궐기모임진행	1
484	19890129	개성의 고려박물관	4
485	19890226	문화유적관리를 잘한다 - 평양시명승지 및 문화유적관리소에서	4
486	19890406	문화 유적과 유물을 더 잘 관리하자	4
487	19890528	고려시기 유물들을 새로 발굴 - 개성시에서	4
488	19890607	혁명유적유물발굴사업을 힘있게 밀어준다 - 함경남도당위원회에서	2
489	19890726	국제평화대행진 참가자들이 신천박물관을 참관, 집회 진행	3
490	19890823	혁명 유적, 유물을 통한 교양은 사람들을 참다운 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중요한 사업	2
491	19891107	혁명적 구호문헌들과 혁명 유적, 유물들을 새로 수많이 발굴 - 황해남도 장연군 일대에서	2
492	19891203	혁명적구호문헌과 혁명유적, 유물들을 발굴 - 자강도에서	2
493	19900915	장수산일대에서 고구려의 남평양유적 발굴 - 안약3호무덤의 주인공문제를 새로 해명	4
494	19901025	조종친선을 보여주는 자료들과 유물들 -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수많이 보충전시	5
495	19901125	새로 발굴된 여러가지 유물 - 통일거리 건설장에서	4
496	19910117	약 1,000년전의 청자기가마터와 유물 발굴 - 황해남도 봉천군에서	4
497	19910202	통일거리 건설장에서 발굴된 유적 유물	4
498	19910630	평성력사박물관	4
499	19910806	백두산수림지대에서 발굴된 6개의 밀영이 원상대로 꾸러졌다 - 현지에서 밀영들을 개영하는 모임진행	1~2

500	19911022	100여점의 역사유물 새로 발굴 - 황해북도에서	4
501	19920126	상원군에서 동굴유적 또 발굴	4
502	19920422	카이손 폼비한주석동지께서 국제친선전람관, 묘향산력사박물관참관	4
503	19920628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새로운혁명사적물과 유물, 자료보충전시	4
504	19921211	혁명유적유물을 길이 보존하도록 이끄시며	2
505	19930430	우리 당의 역사유적, 유물보존관리정책의 생활력	4
506	19930515	로동당시대와 더불어 빛나게 된 역사유적 - 동명왕릉 개건에 깃든 이야기	2
507	19931002	단군릉 발굴 보고 -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민족의 단일성에 대한 확증	1
508	19940123	민족사를 빛내이는 역사유적	4
509	19940201	첫 통일국가의 역사를 전하는 귀중한 민족문화유적 - 고려태조 왕건왕릉 개건식 진행	3
510	1994040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	2
511	19940624	고구려시기 특이한 기마모형 발굴 - 강원도 철령에서	4
512	19940805	평양일대에서 단군조선의 유적유물 새로 발굴	4
513	19941004	우리 나라 역사유적유물사진전시회 -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 진행	6
514	19941006	단군 및 고조선에 관한 제2차 학술발표회 개막	
515	19941006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주체의 방법론을 지침으로 하여 단군조선 역사를 체계화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3
516	19941006	평양일대의 단군 및 고조선관계유적유물들에 대한 년대측정결과에 대하여	3
517	19941006	평양일대의 단군조선유적에서 발굴된 사람뼈에 대하여	3
518	19941006	단군 및 고조선시기의 유적유물발굴성과에 대하여	3
519	19941006	평양일대에서 새로 발굴된 황대성에 대하여	3, 5
520	19941006	평양주변의 고대토성에 대하여	5
521	19941006	새로 발굴된 성천군 룡산리순장무덤에 대하여	5
522	19941006	평양일대에서 새로 발굴된 고인돌무덤과 돌관무덤에 대하여	5
523	19941006	고조선의 비파형단검문화에 대한 재검토	5
524	19941006	단군릉개건준공식에 참가하기 위하여 온 <민단>계 동포들이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5
525	19941006	단군릉개건준공식에 참가하기 위하여 온 해외동포들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5
526	19941008	단군 및 고조선에 관한 제2차 학술발표회 폐막	
527	19941008	평양일대에서 발굴된 고조선의 도기에 대하여	5
528	19941008	단군설화의 주요특징에 대하여	5
529	19941008	강동과 성천 일대에 분포되어있는 단군 및 고조선 관계지명에 대하여	5
530	19941008	단군관계미술유산에 대한 고찰	5
531	19941008	단군설화의 일본렬도보급과 그 역사적배경	6

532	19941008	후조선은 단군조선의 계승국	6
533	19941008	만왕조의 멸망과 락랑국에 대하여	6
534	19941008	우리 나라의 첫 국호 조선의 기원에 대하여	6
535	19941008	단군릉의 개건과 그 의의	6
536	19941127	단군조선시기의 대규모부락터 발굴 - 덕천시 남양동에서	4
537	19941225	새로 발굴된 유물들	4
538	19950219	새로 발굴된 단군조선의 황대성	4
539	19951213	군자혁명박물관창립 20돐 기념보고회 진행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3
540	19960319	매국역적들에 의해 녹아나는 민족문화유물유적	5
541	19960331	새로 발굴된 고연리유적	4
542	19970507	묘향산력사박물관창립 50돐 기념보고회 진행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3
543	19971214	평양지방에서 많은 구석기유물 발견	4
544	19980731	조선혁명박물관창립 50돐 기념 - 혁명사적부문 과학토론회 진행	3
545	19980801	조선혁명박물관에 어린 거룩한 자욱	2
546	19980801	수령님의 력사가 흐르는 박물관으로	2
547	19980801	위인송배의 뜨거운 마음안고	2
548	19980801	무심히 볼수 없는 사적물들	2
549	19980801	조선혁명박물관창립 50돐 기념보고회 진행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3
550	19980830	고조선시기의 제단 유적	4
551	19980913	표대유적	4
552	19990509	력사문화유적관리를 잘한다 - 함경북도명승지 및 문화유적관리소에서	4
553	19990516	새로 조사발굴된 력사유적	4
554	19990522	력사문화유적을 잘 보존관리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된 방침	2
555	19991114	구석기시대 동굴유적 새로 발굴	4
556	20000409	문화유적을 적극 애호관리하자	5
557	20000509	력사유적유물보존관리사업을 잘한다 - 개성시에서	4
558	20000521	영광의 자욱을 따라 특색 있는 박물관으로	2
559	20000522	지하철도건설박물관창립 20돐 기념보고회 진행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3
560	20000814	조선혁명박물관에 어린 불멸의 업적	2
561	20001017	우리 나라 주재 경제 및 무역참사단 조선혁명박물관 참관	5
562	20001105	비전향장기수들 어은혁명사적지, 조선미술박물관, 평양제1고등중학교 등을 참관	5
563	20001112	력사문화유적보존관리에 큰 힘을 - 개성시에서	1
564	20001125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를 대로천박물관으로 더 잘 꾸리자 -전국당선전일군돌격대원들의건설착공식진행	1
565	20010806	단군조선시기의 대규모부락터유적 발굴	5

566	20011031	역사유적유물보존관리에 큰 힘을 - 보존관리를 균중적으로 - 평양시에서	1
567	20011031	역사유적유물보존관리에 큰 힘을 - 유적유물을 원상그대로 - 개성시에서	1
568	20011217	공화국정부는 민족문화유물보존사업에 큰 힘을 넣고 있으며 유네스코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 -유엔총회제56차회의81차전원회의에서우리나라대표가연설	6
569	20020406	새로운 인류화석 발굴, <화대사람>으로 명명	4
570	20020412	보천보혁명박물관창립 50돐 기념보고회 진행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3
571	20020422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 조선혁명박물관 참관	2
572	20020424	재일본조선인대표단 신천박물관 참관	5
573	20020429	우리 나라 주재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조국해방전쟁사적지와 지하철도건설박물관 참관	4
574	20020508	역사유적유물관리에 큰 힘을 - 개성시에서	1
575	20020605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오랜 역사문화유적인 량천사를 돌아 보시였다	1
576	20020609	민족의 지혜와 재능을 귀중히 여기시여	3
577	20020609	민족적 자부심을 안고	3
578	20020609	량천사 -국보적 문화유산	3
579	20020609	당적인 사업으로	3
580	20020609	크나큰 영광 가슴에 안고	3
581	20020831	왕재산혁명박물관, 평성의학대학 창립 30돐 기념보고회 진행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3
582	20021007	고구려벽화무덤 새로 발굴	4
583	20021202	역사유적유물보존관리를 실속 있게 - 개성시에서	1
584	20021202	조선고고학의 빛나는 성과	4
585	20021206	새로 발굴된 고려시기 동종	4
586	20021227	민족의 자랑 - 이름난 유적유물	5
587	2003021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오랜 역사문화유적인 심원사를 돌아 보시였다	2
588	20030217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일행 조선혁명박물관 참관	5
589	20030222	군자혁명박물관창립 50돐 기념보고회 진행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3
590	20030302	역사문화유적의 자랑 - 심원사	4
591	20030305	귀중한 문화유적유물들을 적극 발굴	1
592	20030411	우리 나라 주재 경제 및 무역참사단 조선혁명박물관 참관	5
593	20030604	역사유적유물들을 잘 보존관리 - 개성시에서	1
594	20030610	역사문화유물들을 새로 발굴전시	4
595	20030626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 신천박물관 참관	3
596	20030716	로씨야대사관 성원들 신천박물관 참관	5
597	20030920	단군조선시기의 토성 새로 발굴	4
598	20030924	역사문화유적보존관리에 큰 힘을 -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	1

599	20031020	역사유적들과 룡	5
600	20031130	고구려문화를 계승한 발해의 문화유물 - 투구	4
601	20031203	신석기시대 질그릇가마터 발굴	4
602	20031224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국제기구대표들 조선혁명박물관 참관	4
603	20040126	유적유물보존관리에 힘을 넣어 - 개성시에서	1
604	20040522	이란텔레비전 방송 신천박물관을 소개	5
605	20040706	재일본조선인대표단 만경대 방문, 조선혁명박물관 참관	5
606	20040708	우리 나라 주재 무관단 조선혁명박물관 참관	5
607	20040710	개성지구에서 역사유적유물 새로 발굴	4
608	20040717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 봉화혁명사적관을 <봉화리 혁명박물관>으로 함에 대하여	1
609	20040719	새로 발굴된 대규모의 리천리 유적	4
610	20040721	새로 꾸려진 봉화리 혁명박물관	2~3
611	20040721	봉화리혁명박물관 개관식 진행	1
612	20040828	역사문화유적들을 잘 보존관리 - 황해남도에서	1
613	20040908	우리 나라 주재 무관단 조선혁명박물관과 지하철도건설박물관 참관	4
614	20040910	역사문화유적들을 옛 모습대로	4
615	20040920	문화유적유물을 잘 보존관리 - 평안남도안의 문화유적관리소들에서	1
616	20040928	역사유적유물들을 소개하는 화첩들 출판	4
617	20041022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발해벽화무덤 발굴	4
618	20041031	유구한 역사유적 - 대성산성과 안학궁터	5
619	20041105	새로 발굴된 발해시기의 벽화무덤	4
620	20041108	유적유물보존관리를 균중적으로 - 개성시에서	1
621	20041209	자랑스러운 국보	4
622	20041209	개성공업지구 1단계건설지역에서 역사유적유물 발굴	4
623	20041212	새로 건설되는 역사박물관 - 황해북도에서	4
624	20050210	역사문화유적에 어린 송고한 뜻	2
625	20050219	로씨야 <베료즈까> 무용단 제9차 김정일화축전장과 조선혁명박물관 참관	4
626	20050413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조선혁명박물관 참관	3
627	20050508	유물유적보존사업을 실속있게 - 개성시에서	1
628	20050522	총련감사단 만경대 방문, 조선혁명박물관 참관	5
629	20050908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성원들 조선혁명박물관 참관	4
630	20060109	민족의 슬기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문화유적유물들 - 개성시안의 문화유적유물들을 보고	4
631	20060219	민족의 재능과 슬기가 깃든 귀중한 역사문화유적	5
632	20060504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니고 사회주의진지를 철벽으로! - 개성시계급교양관을 찾아서 -역사문화유적파괴자,략탈자들에게대한고발장 - 400여점의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여	5

633	20060608	봉화리혁명박물관창립 40돐 기념보고회 진행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2
634	20060626	미제의 만행을 보여주는 개성지구의 역사유적들	4
635	20060917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자랑하는 모란봉의 역사유적들	4
636	20070121	고구려인민들의 예술적재능이 깃든 조각유물	5
637	20070319	당과 국가간부들 봉화리혁명박물관 참관	2
638	20070408	동방문화발전에 미친 영향력을 보여주는 유물	5
639	20070515	묘향산력사박물관창립 60돐 기념보고회 진행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3
640	20070526	훌륭히 꾸려진 문화유적구역	1
641	20070603	애국의 넋을 새겨주는 역사문화유적들	4
642	20070809	민족문화유적들을 훌륭히 보수복원 - 문화성 문화보존관리국에서	1
643	20070813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오랜 역사문화유적인 정광사를 돌아보시였다	1
644	20071004	로무현대통령의 부인 조선중앙력사박물관 참관	2
645	20071112	가을철문화유적관리사업 활발	4
646	20071120	은천군에서 고대 및 중세시기의 대규모무덤떼 발굴	4
647	20071121	절세의 위인의 숭고한 동지애의 력사 영원하리 -조선혁명박물관<수령님과전우관>을참관한인민들의신념의 맹세	1
648	20071216	발해의 부수도유적 - 청해토성	5
649	20071220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성원들 조선혁명박물관 참관	4
650	20071222	고고학자들 큰 규모의 고대돌제단유적 조사발굴	5
651	20080120	개성시에서 고려초기의 돌다리유적 발굴	4
652	20080327	신천박물관창립 50돐 기념보고회 진행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3
653	20080406	문화유적애호월간사업에 적극 참가하자	4
654	20080427	높은 천문학발전수준을 보여주는 별자리 유적	5
655	20080501	우간다공화국 당 및 정부군사대표단 조선혁명박물관 참관	4
656	20080528	역사유적들을 훌륭히 보수	4
657	20080728	역사문화유적보존관리사업에서 모범 창조 - 함경남도에서	1
658	20080801	조선혁명박물관창립 60돐 기념보고회 진행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4
659	20080814	조선미술박물관창립 60돐 기념보고회 진행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3
660	20080905	주조 무관단 조선혁명박물관 참관	4
661	20080906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성원들 조선혁명박물관 참관	4
662	20081109	역사문화유적보존관리를 책임적으로 - 묘향산력사박물관에서	4
663	20081125	가을철문화유적애호월간사업 활발	3
664	20081127	반미계급교양의 거점 신천박물관 - 지난 10년간 397만 5000여명 참관	5
665	20081127	복관대첩비는 고발한다	5

666	20081216	역사문화유적발굴사업 활발히 진행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에서	1
667	20090208	백두산의 국보유적 - <룡신비각>	4
668	20090516	역사유적애호사업에 큰 힘을	1
669	20090524	백두산의 역사유적 - <종덕사>	4
670	20090624	신천박물관을 통한 교양을 당적사업으로 - 신천군당위원회에서	3
671	20091028	청파대동굴에서 새로 발굴된 유적, 유물들	4
672	20091115	역사유적 - 천왕당	5
673	20091203	문화유적보존관리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5
674	20100413	개건된 조선미술박물관 개관식 진행	10
675	20100516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러진 조선미술박물관	4
676	20110106	민족문화유산에 깃든 송고한 뜻	2
677	20110116	발해의 우수한 금속공예	5
678	20110206	송고한 민족애를 지니시고	5
679	20110207	절대로 덮어둘수 없는 일제의 날강도적인 문화재략탈범죄	6
680	20110208	문화유산은 민족의 귀중한 재부	5
681	20110227	룡강일대에서 고구려벽화무덤 또 발견	4
682	20110306	령통사-박연도로건설 적극 추진	4
683	2011051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묘향산지구를 현지도하신 30돐 기념보고회 진행	2
684	20110625	활발히 진행되는 이동해설강의 - 지하철도건설박물관 강사들	3
685	20110627	천년강국 고구려의 높은 문화발전수준을 보여주는 유적유물 - 대성동일대의 무덤떼에 대한 조사발굴 및 연구사업 진행	4
686	20110706	천백배 복수의 피가 끓게 하는 력사의 증거물들 - 새 세기에 들어와 전국적으로 수천점의 계급교양자료들 새로 발굴전시	5
687	20110715	령통사-박연도로건설을 다그친다 - 개성시에서	3
688	20110818	역사는 외곡할수 없다	6
689	20110821	민족문화유산을 빛내여주신 위대한 령도	2
690	20110914	훌륭히 꾸러지는 력사교양거점 - 황해남도에서	4
691	20110926	역사문화유적들을 잘 보존관리 - 각지에서	4
692	20111006	자료발굴사업에 힘을 넣어 - 광산군계급교양관에서	5
693	20111008	고구려첨성대터유적 새로 발굴	5
694	20111117	역사유적보존관리사업에 큰 힘을 - 라선시에서	5
695	20111129	평양민속공원건설 적극 추진	1
696	20111204	민족문화유산보존관리를 책임적으로	5
697	20120106	평양민속공원건설 마감단계에서 추진	4
698	20120127	절세의 위인의 불멸의 업적 길이 빛나리 - 조선미술박물관을 찾아서	4
699	20120306	일제의 날강도적인 문화재략탈범죄	6
700	20120410	조선우표박물관 개관식 및 조선우표전시회 개막식 진행	6

701	20120516	최룡해총정치국장 마감단계에 들어선 평양민속공원건설장 현지료해	2
702	20120614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혁명박물관을 더 잘 꾸리는데 기여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1
703	20120709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돌아보시었다	1
704	20120710	백두산종합박물관이 건설된다	1
705	20120908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준공을 앞둔 평양민속공원을 돌아보시었다	1~2
706	20120912	반만년민족사를 집대성한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 - 평양민속공원 준공식 진행	1
707	20120922	절세위인의 위대한 애국유산, 김일성조선의 고귀한 문화적재보 -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선 평양민속공원	3
708	20121014	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시여 빛나는 민족의 유구한 력사, 찬란한 문화 - 평양민속공원 력사종합교양구와 력사유적전시구를 돌아보고	5
709	20121021	태양민족의 위대한 력사는 영원하리라 - 평양민속공원 현대구를 돌아보고	5
710	20121021	온성지구 혁명사적지에 바쳐가는 뜨거운 지성	4
711	20121028	따사로운 손길아래 빛을 뿌리는 우리 인민의 민속전통과 미풍양속 - 평양민속공원 민속촌구를 돌아보고	5
712	20121108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겨울철 답사 시작	2
713	20121130	애국열의에 의해 훌륭히 보호관리되는 민족유산	4
714	20121201	국보적가치를 가지는 도서들과 력사유물들	4
715	20121205	력사문화유적보존관리에 힘을 넣어 - 강계시에서	4
716	20121230	인공지구위성발사성공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 평양민속공원 참관	2
717	20130120	우수한 민족문화유산 몇가지	5
718	20130202	새롭게 발굴고증된 고구려시기의 유적 서산성	4
719	20130211	민족전통이 활짝 꽃피어나는 참다운 조국	5
720	20130225	제3차 지하핵시험성공에 공헌한 국방과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군인건설자들과 일군들 국가선물관과 평양민속공원 참관	1
721	20130303	불멸의 전승업적을 조국청사에 찬연히 빛내여갈 철석의 신념과 의지 -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건설장에서	4
722	20130310	불멸의 전승업적을 만대에 빛내여갈 신념의 분출 - 전승혁명사적지가 훌륭히 꾸려지고 있다	1
723	20130604	뜻깊은 사연 전하는 혁명사적물	3
724	20130625	무자비한 징벌을 안기려는 복수자들의 신념의 분출 - 인민군군인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신천박물관을 계속 참관	4
725	20130628	우리 나라 력사유적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4
726	20130702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완공을 앞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돌아보시었다	1
727	20130728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개관식 성대히 진행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개관테프를 끊으시었다	6

728	20130801	주체적인 민족유산보호정책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37차회의에서 우리 나라 개성시의 역사유적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4
729	20130806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혁명박물관을 더 잘 꾸리는데 기여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1
730	20130816	전승의 역사를 천추만대에 빛내여갈 혁명의 만년재보 -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세계적인 기념관으로 일떠세운 우리 당의 빛나는 령도에 대하여	1
731	2013082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동명왕릉을 현지지도하신 60돐 기념보고회 진행	2
732	20130916	유구한 민족사를 자랑하는 인민의 문화휴식터	4
733	20130927	반만년의 민족사를 빛내여주신 절세의 위인	2
734	20130927	승고한 애국의지, 단군릉의 새 역사	2
735	20130927	위대한 스승의 손길 영원합니다	2
736	20130927	선군시대 또 하나의 대기념비적창조물 -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돌아본 외국인들의 반향	6
737	20130929	안악3호무덤	5
738	20131003	단일민족의 귀중한 문화적재보	4
739	20131003	애국애족의 념을 전하는 기적비	4
740	20131003	지명에 비낀 시조왕의 역사	4
741	20131014	철면피한들의 전시회놀이	6
742	20131020	새로 발견된 광개토왕관련비석	5
743	20131110	민족문화유산보존관리는 승고한 애국사업	5
744	20131130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삼지연혁명전적지를 돌아보시었다	2
745	20131205	더욱 훌륭히 변모된 명승지 박연지구	5
746	20131225	신석기시대의 무덤유적 발굴 - 김일성종합대학과 사회과학원 연구집단에서	4
747	20140427	새로 알려진 발해시기의 금귀걸이	5
748	20140518	민족유산보호관리사업에 큰 힘을 - 개성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5
749	20140518	새로 발굴된 호남리벽화무덤	5
750	20140530	박봉주총리 삼지연혁명전적지 혁명사적보존사업 현지료해	2
751	20140705	고구려시기의 소금생산유적 발굴	5
752	20140810	태양의 빛발아래 빛을 뿌리는 유적, 유물들	5
753	20140916	조선-프랑스 개성성공동조사발굴전시회 개막	4
754	20140928	우리 민족의 귀중한 역사문화유산 - 광개토왕릉비	5
755	20141002	미일침략자들의 죄행자료들 새로 발굴전시 - 개성시계급교양관에서	5
756	20141030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단군릉을 현지지도하신 20돐 기념보고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전달	2
757	20141030	김정은: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책임일군들과한담화 주체103(2014)년10월24일	3

758	20141120	중앙계급교양관에 일제의 죄행을 고발하는 유해들과 유물들 새로 전시	5
759	20141121	역사유적유물보존관리사업에 힘을 넣어 - 강계시에서	3
760	20141122	역사유적유물보존관리사업 적극 진행 - 개성시에서	5
761	20141125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천박물관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762	20150111	항일무장투쟁시기 혁명적구호문헌들과 사적물들 - 랑림혁명사적관에 새로 전시	2
763	20150118	연탄군의 심원사	5
764	20150122	조선의 국보를 더욱 빛내여가리	5
765	20150130	조선인민내무군 지휘성원들 백두산지구혁명전적지 답사	3
766	20150305	민족의 재보를 떠받드는 주춧돌 - 개성시민족유산보호관리소 종업원들	5
767	2015031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미술박물관을 현지지도하신 50돐 기념보고회 진행	2
768	20150311	우리 나라 미술의 보물고에 깃든 불멸의 업적 길이 빛나리 -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미술박물관을 현지지도하신 50돐을 맞으며	4
769	20150329	자연박물관건물기초공사 결속, 20여개 대상건설성과 확대 - 중앙동물원 2단계개건공사장에서	1
770	20150511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혁명박물관을 새롭게 꾸리는 사업에 적극 기여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3
771	20150604	사연깊은 역사유적에 새겨가는 값높은 삶 - 동명왕릉유적관리소 소장 오계근동무와 종업원들	5
772	20150716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혁명박물관을 새롭게 꾸리는 사업에 적극 기여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1
773	20150723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설한 신천박물관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2
774	20150727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의 거점으로 새로 일떠선 신천박물관 개관식 진행	6
775	20150812	큰 규모의 자연박물관과 본관건물골조공사 결속 - 중앙동물원 2단계개건공사장에서	1
776	20150812	붉은기이어달리기에 참가하고있는 조선인민군 군인들 - 신천박물관 참관, 복수결의모임 진행	5
777	20150813	국가책임일군들과 성, 중앙기관 당, 행정일군들 신천박물관 참관	4
778	20150830	천추에 용납 못할 문화재락탈만행	6
779	20150906	신천박물관은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의 거점	3
780	20150926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빛내여나갈 열의 - 평안북도에서	5
781	20151002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혁명박물관을 새롭게 꾸리는 사업에 적극 기여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1
782	20151017	국보적가치를 가지는 구석기시대전기유적 새로 발굴	5
783	20151020	왕재산혁명사적지관리소창립 40돐 기념보고회 진행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3
784	20151022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성원들 신천박물관 참관	4

785	20151024	민족유산은 대를 이어 빛내어나가야 할 귀중한 재보	3
786	20151122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혁명박물관을 새롭게 꾸리는 사업에 적극 기여한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천강 계단식발전소건설을 성심성의로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1
787	20151201	조선중앙력사박물관창립 70돐 기념보고회 진행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3
788	20151201	수령이 위대하여 민족의 유구한 력사가 빛난다 - 조선중앙력사박물관창립 70돐을 맞으며	5
789	20151228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혁명박물관을 새롭게 꾸리는 사업에 적극 기여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1
790	20160128	력사박물관을 찾아온 사연	5
791	20160207	력사유적 안불사	5
792	20160221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혁명박물관을 새롭게 꾸리는 사업에 적극 기여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1
793	20160318	미제와 계급적원수들에게 철추를 안길 복수자들의 대오 - 인민군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신천박물관 련일 참관	5
794	20160324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혁명박물관을 새롭게 꾸리는 사업에 적극 기여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1
795	20160413	국가책임일군들과 당, 군수공업부문 일군들 군사혁명사적지 참관	2
796	20160429	완공의 날이 눈앞에 있다 - 자연박물관건설과 중앙동물원 2단계개건공사장에서	3
797	20160513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혁명박물관을 새롭게 꾸리는 사업에 적극 기여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1
798	20160520	조선민족의 자랑-금속활자 새로 발굴	5
799	20160520	개성 만월대에서 발굴된 고려금속활자와 그 문화사적의의에 관한 사회과학부문 토론회 진행	5
800	20160606	봉화리혁명박물관창립 50돐 기념보고회 진행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3
801	20160606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참관	2
802	20160624	주조 무관단 성원들 신천박물관 참관	5
803	20160710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자연박물관 건설과 중앙동물원개건공사를 적극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1
804	20160724	고려시기의 왕릉들을 새로 발굴	5
805	20160809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감사문이 자연박물관건설과 중앙동물원개건보수공사를 훌륭히 완공한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 지원자들에게 전달되었다	1
806	20160819	혁명사적지건설지도국창립 40돐 기념보고회 진행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3
807	20160908	주조 경제 및 무역참사단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 참관	4
808	20160910	우리 나라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을 미국신문이 소개	6
809	20160911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 - 금석문	5
810	20161009	라선시에서 원시, 고대시기 유적유물 발굴	5
811	20161213	규모가 큰 고구려무덤때 새로 발굴	5

812	20170129	귀중한 역사문화유산 박천군의 심원사	5
813	20170129	<무예도보통지>에 비긴 송고한 민족애	5
814	20170219	민족유산의 보물고를 더욱 빛내이는 자랑찬 성과 -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고구려에 통합된 조선후국의 소금생산유적 발굴	1
815	20170322	당의 민족유산보호정책관철에서 이룩된 또 하나의 성과 -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민족고전 <증보문헌비고> 번역출판	1
816	20170328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개건된 조선혁명박물관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817	20170420	수리아대사관 성원들 조선혁명박물관 참관	4
818	20170424	역사유적보존관리사업 적극 추진 - 개성시에서	4
819	20170428	김일성, 김정일민족의 만년재보로 빛나는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 - 조선혁명박물관에 새겨진 불멸의 혁명령도사의 갈피를 더듬어	2
820	20170503	묘향산역사박물관창립 70돐 기념보고회 진행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3
821	20170503	몽골대사관 성원들 조선혁명박물관 참관	4
822	20170504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아서(1)	2
823	20170606	당선전일군들 보천보혁명전적지 답사, 삼지연군 참관	2
824	20170709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 조선혁명박물관 참관	2
825	20170802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혁명박물관 강사들을 비롯한 종업원들에게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 진행	1
826	20170820	묘향산이 전하는 애국의 자옥 - 묘향산역사박물관 부부유적관리원드리 생활에서	5
827	20170820	고려 15대왕 숙종의 무덤 새로 발굴	5
828	20170907	주조 경제 및 무역참사단 조선혁명박물관 참관	5
829	20170908	대륙간탄도로켓장착용 수소탄 시험성공에 기여한 성원들 조선혁명박물관 참관	2
830	20170908	전국출판보도부문 기자, 언론인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을 답사	2
831	20170921	고구려시기의 벽화무덤 새로 발굴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에서	4
832	20171015	고구려시기의 문화유물들	5
833	20171019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고장 - 개성시를 돌아보고	5
834	20171019	관리일지에 비긴 애국의 마음 - 자강도민족유산보호관리소 강계시관리원들	5
835	20171025	주체조선의 승리력을 길이 전하는 혁명전통교양의 위력한 거점 - 고산진혁명사적관 훌륭히 개건	2
836	20171029	민족유산보호사업 활발히 진행 - 전국각지의 일군과 근로자들	5
837	20171112	민족유산을 빛내여주신 뜨거운 애국의 손길	6
838	20171126	민족유산보호사업에 큰 힘을 넣어 - 개성시에서	4
839	20171203	역사유적 구성남문	5
840	20171218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 조선혁명박물관 참관	2

841	20171219	김정숙녀사를 따라배우는 일본여성주체사상연구회대표단 조선혁명박물관 참관	5
842	20171219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학술토론회 진행	5
843	2018010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색조각상을 조선혁명박물관에 정중히 모시였다 - 꽃바구니를 진정하는 의식 진행	3
844	20180111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혁명박물관을 새롭게 꾸리는 사업에 적극 기여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1
845	20180311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찬란한 문화전통 - 고려박물관을 찾아서	5
846	20180327	신천박물관창립 60돐 기념보고회 진행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3
847	20180329	로씨야대사관 성원들 군자혁명박물관 참관	4
848	20180411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조선혁명박물관과 평양시내 여러곳 참관	2
849	20180417	고구려시기의 벽화무덤 새로 발굴	4
850	20180424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아서(25) -빈터에서사회주의건설의새력사를개척하신절세의애국자	2
851	20180424	고려시기의 절유적인 광복사터 새로 발굴	5
852	20180507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혁명박물관을 새롭게 꾸리는 사업에 적극 기여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1
853	20180527	더욱 빛을 뿌리는 민족의 문화재보 -10여개 대상이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새로 등록	5
854	20180624	공화국력사에 뚜렷한 자욱을 남긴 지식인들 - 공로있는 고고학자 채희국	5
855	20180628	고려건국 1100돐기념 사회과학부문 토론회 진행	4
856	20180708	민족문화유산들에 비낀 사연 - 송인전이 전하는 사랑의 이야기	5
857	20180708	따사로운 해빛과 개성의 력사유적들	5
858	20180819	만월대에서 발굴된 문화유물 - 꽃형청자접시와 원통형 청자	5
859	20181021	당의 민족유산보호정책의 정당성 과시 -8개 대상을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새로 등록	5
860	20181125	력사유적 부용당	5